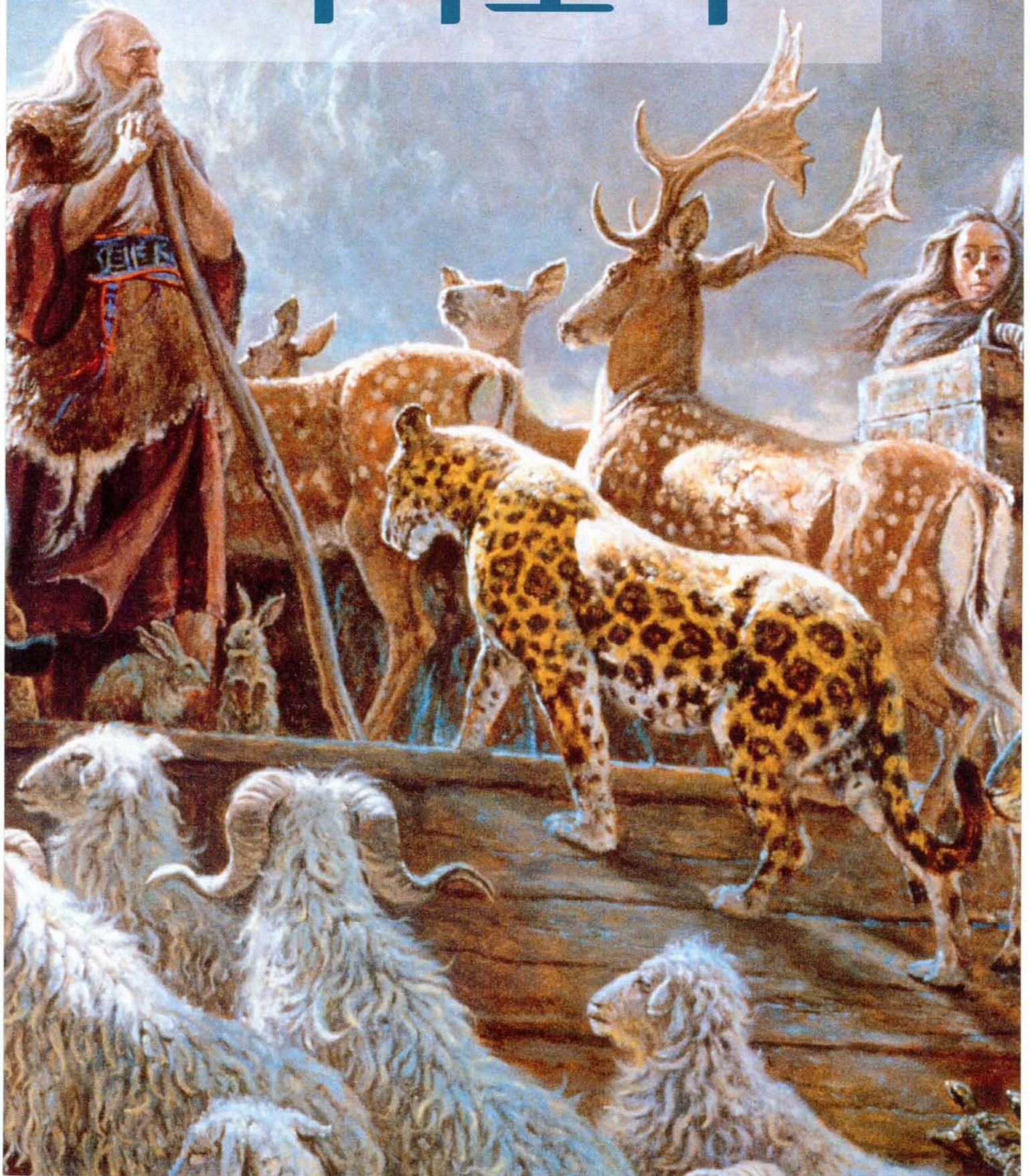


# 리아호나



# 리아호나



### 표지

앞: 클라크 켈리 프라이스,  
주께서 그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니라,  
"구약에 관해 말씀하신 말일의 예언자들",  
7쪽 참조.



### 친구들란 표지

사진 삽화: 크레이그 다이몬드,  
"성전", 2쪽 참조.



친구들, 2쪽 참조

##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우리 생활에서 골리앗들을 물리침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7 구약에 관해 말씀하신 말일의 예언자들
- 10 구약전서를 공부하고 가르침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 18 "이때를 위하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 24 방문 교육 메시지: 우리의 신성한 본질을 이해함
- 36 해롤드 비 리: 위대한 교사 브래 잉글랜드
- 48 리아호나 2002년 2월호 활용하기

## 청소년란

- 25 질의 응답: 학교에서 사람들이 부적절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 28 말 이상의 것 피터 비 가드너
- 30 말일성도의 소리: "너는 승리할 것이다"  
피라냐가 있던 없든 라미로 루이스 세자  
내가 해야 했던 중요한 일 타이스 마르틴스 레알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 주셨다 켈마 오만다크 타잉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게리 프루덴시오 파브로스  
어머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세요 아딜슨 호세 오르타
- 46 꿈에 그리던 이상형 라라 뱅거터

## 친구들란

- 2 예언자와 사도께서 주신 말씀: 성전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 4 함께 나누는 시간: 영원히 함께 비키 에프 마쭈모리
- 6 친구가 친구에게: 얼 엠 몬슨 장로
- 8 창조물 발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물  
레슬리 하트속
- 10 새친구 사귀기 앤지 버그스트롬
- 12 신약 성서 이야기: 귀신이 들린 아이;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
- 16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기: 정직하기  
루디네이 안토니오 페르난데스 필로

2쪽 참조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힐몰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사도 위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엘 러셀 벨러드, 조셉 비 워스킨,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다 해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말린 케이 잰슨

**고문:** 제이 켄트 줄리, 더블류 폴트 커, 스티븐 에이 웨스트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엘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엘 롬니

그래픽 책임자: 엘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빌 존슨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데일리

출판 보조: 코니 세익스피어

편집 보조: 레너 제이 카터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기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밴 캠펜

선임 디자이너: 새리 쿡

디자이너: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슨

생산: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테니스 커비, 엘리 보넷, 로널드 에프 스피크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와이

디지털 교정 인쇄: 제프 마틴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스

통 권: 제 431호, 제 39권, 제 2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2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정동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운반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역과 변경된 주소를 배부부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베트남어,

폴카리아어, 시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솔로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카리비시아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름함)

©2002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February 2002 No.2.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러시아에서의 교회 성장**

저는 러시아 사라토프에 살고 있으며 교회 회원이 된 지 8년 되었습니다. 이곳에 첫번째 선교사가 도착한 것은 9년 전이었습니다. 1993년에 제가 부모님과 함께 침례 받았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러시아어로 된 물물경과 도시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몇 명의 선교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큰 신앙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날 복음의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하나의 지방부가 생겼고,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매주 참된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리아호나(러시아어 판)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세계 각지의 성도들에 관한 기사와 대관장단의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기사들은 복음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언제나 쉽지 않은 길에서 리아호나는 충실한 동반자가 되어 줍니다.

마리나 팔치코바,

러시아 사라토프 지방부

사라토프스키 첼트랄니 지방부

**초등학교 지도자들에게 소중한 잡지**

우리는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에 대해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최근에 잡지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을 보았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잡지는 외관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

서도 탁월함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느끼는 것이지만 표현하기 힘든 일들을 여러 기사들에서 간결하고 참신하게 표현한 점이 특별히 감명 깊습니다.

초등학교 회장단 및 교사들,

베네수엘라 시우다드 오제다 스테이크

로스 라우렐레스 와드



**연차 대회 특집호에서 답을 얻습니다**

매달 저는 리아호나(중국어 판)가 도착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안에는 바로 제가 필요로 하는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나 그림을 통해 저는 종종 제가 원하는 개인적인 계시를 얻습니다.

저는 1월호와 7월호 연차 대회 특집호를 즐겨 읽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계시며 시의 적절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새롭게 상기하게 됩니다.

저는 또한 전세계의 성전 사진을 사랑합니다. 가족의 사정으로 인해 지금은 성전에 가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가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리아호나에 감사드립니다. 이 잡지는 매달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접하는 계기가 됩니다.

첸 왕청청,

타이완 타이쑹 스테이크

타이쑹 제3와드

# 우리 생활에서 골리앗들을 물리침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수년 전에 저는 교회 청소년들에게 우리 생활에서 골리앗들을 물리치는 일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같은 주제를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적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싸워야 할 골리앗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구약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이 위대한 경전에서 배울 수 있는 한 훌륭한 본보기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 왕의 영도 하에 블레셋 군대와 생사를 가르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계곡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군대가 한 언덕 위에 진을 쳤고, 블레셋 군대가 맞은편 언덕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에는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란 장대한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장은 여섯 규빗 한 뼘이었습니다. 제대로 맞게 계산했다면, 그 키는 대강 3미터 정도나 되는 키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농구 센터가 되었겠습니까!

그는 갑옷으로 무장한 채 계곡으로 내려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

“...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사무엘상 17:8~10)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 거인을 보고 서슬이 시퍼런 그의 고함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 중에 그에게 걸맞은 상대가 없었기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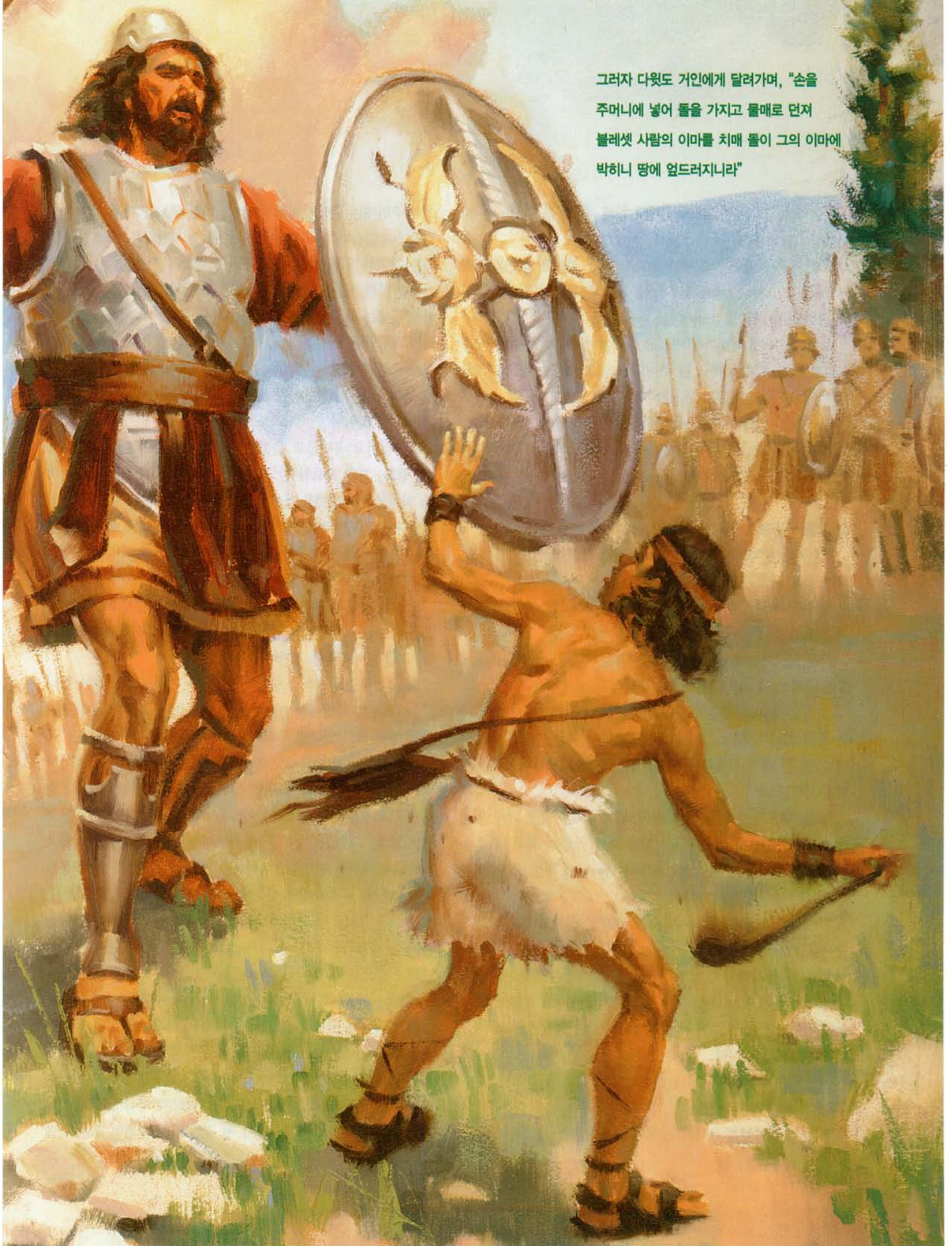
한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어린 아들에게 군대에 있는 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게 했습니다.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골리앗이 다시 나와 전과 똑같이 도전하면서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직 소년에 불과한 다윗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한 말을 바꿔 말하겠습니다.) “왕이시여, 왜 그토록 이 거인을 두려워하시나이까? 제가 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사무엘상 17:33)

## 신앙으로 무장한 다윗

그러자 다윗은 나가 싸우게 해 달라고 사울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양 떼를 구하려고 사자와 곰과 싸웠던 일을 말하며 주님께서 자신을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 내실 것이라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사울은 많은 병사들이 이미 목숨을 잃었으니 한 사람쯤 더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것은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였는지 다윗에게 이렇게

그러자 다윗도 거인에게 달려가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말했습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사무엘상 17:37)

그런 다음 사울은 다윗에게 견기도 힘들 정도로 갑옷을 차려 입혔습니다. 다윗은 왕에게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라고 말하고 갑옷을 벗었습니다.

그런 후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 나아”(사무엘상 17:40)갔습니다.

이 뜻내기 소년은 오직 물매와 돌맹이 다섯 개를 가지고 신앙의 갑옷 외에 다른 어떠한 갑옷도 입지 않고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한 골리앗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골리앗은 다윗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 말을 받아 다윗은 다음과 같은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사무엘상 17:42~46)

3미터나 되는 거인을 마주하고도 소년은 참으로 담대히 말했습니다.

화가 난 골리앗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러자 다윗도 거인에게 달려가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사무엘상 17:49)졌습니다.

### 우리 삶 속의 악한 거인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악한 의도를 가진 거대한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키가 3미터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를 위협하거나 약화시키며 파멸시킬 수 있는, 매력적이지만 악한 것들을 조종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입니다. 이러한 악한 것들에는 맥주, 술, 담배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노예로 부리고 싶어합니다.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이 여러 종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팔러다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수십억 달러의 사업이며, 이는 거대하고 악한 거미집과도 같습니다.

유혹적이고 흥미롭고 솔깃한 외설물도 있습니다. 이 또한 잡지, 영화, 기타 자료를 만드는 거대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설물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허락한다면,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으로 침입해 들어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돈을 빼앗고 철저히 파멸적인 활동으로 여러분을 이끌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배후에 있는 거인들은 위협적이며 교묘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전쟁에서 막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움아매고 싶어합니다.

그들의 제품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사방에서 이러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손에 진리의 물매를 들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조연과 가르침과 권고의 말씀을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을 정복하려는 이러한 적들과 맞서 사용할 덕행과 명예와 고결성이라는 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도전해 온다면, 비유적으로 말해, 그 돌을 “양미간”에 적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피하도록 자신을 단련함으로써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듯이 그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어떤 사람도 이러한 세력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지켜 줄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여러분을 위협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굳건히 서서 본분을 지킨다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우리 주변에 골리앗들이 있지만, 손에 진리의 물매를 들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적들과 맞서 사용할 덕행과 명예와 고결성이라는 물매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싸워 이긴 여러 전투를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유혹이 닥쳐오면 그 유혹을 거만하고 속임수를 일삼는 거인 “골리앗”이라 칭하고, 다윗이 가드 출신 블레셋인에게 행한 것처럼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축복해 주시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 가정을 지키라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안에 최고급 융단이며 가구, 전기 제품 등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놓았습니다. 최고급 승용차와 값비싼 보석도 들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도적이 들어와 물건을 훔쳐 갈 것이 두려워 값비싼 이중 자물쇠 장치를 설치했고, 집을 드나들

때마다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창문이며 문마다 쇠창살을 대어 놓아, 집 밖을 내다보는 그의 모습은 마치 감옥의 죄수처럼 보였습니다. 불청객이 들어오면 불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리는 값비싼 전자 감시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그는 도둑이 숨을 곳이 없도록 너무나 관목이 전혀 없게 조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만족해 하며 “이젠 안전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쇠창살이나 이중 자물쇠 장치, 경보음 중 어떤 것도, 그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침입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절망과 불행의 독방에 갇힌, 스스로에게 포로가 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기 생활 속의 골리앗들이 자신을 압도하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가 수없이 다루어진 오래된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합니다. 가정을 지키십시오. 더 교활한 침입자들이 은밀히 들어와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데도, 도둑이나 강도에 대비한 쇠창살과 자물쇠와 전자

장치만 설치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역병을 피하듯이 외실물을 피하십시오. 몇 해 전에 죄로 인해 교회에서 파문되었던 사람에게 축복을 회복시켜 주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전문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비행기에서 입을 외설 잡지를 사면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책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이 이러한 책들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이고 흥분을 돋구는 영화들을 찾아다니며 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이러한 것에 전혀 동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혼자 다녔습니다. 집을 떠날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았고, 더욱 쉽게 자신의 욕망에 탐닉할 수 있도록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사무실에 남아 있을 구실을 찾아냈고, 그와 함께 남아 있을 것을 비서에게 요구했습니다. 한 가지 일은 또다른 일로 이어졌고 그는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 책상 맞은편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처음 외설 잡지를 읽었던 그 날의 일을 회회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하고 끝까지 충실하게 남아 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부끄러움과 곤혹을 겪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파문 된 후 걸어왔던 지옥 같은 생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다시 그 충만한 축복을 누리길 소망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저는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거룩한 신권의 권능으로 그의 신권과 성전 엔다우먼트와 성전 인봉 의식과 기타 그가 전에 받았던 모든 다른 축복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축복하는 동안 이 강건한 남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흐느꼈고, 그의 아내도 그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축복을 마치자,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는 그녀에게 용서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를 용서했고 그를 사랑하며 언제나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년간보다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저 역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어리석음과 범법을 통해 지러야 했던 엄청난 대가와 가족이 치른 대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 여러분의 골리앗에 맞섬

불행하게도, 언제나 그렇게 행복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쓰라림과 원한 맺힌 이혼으로 끝납니다. 한때의 사랑이 증오로 변합니다. 자녀들의 삶은 서서히 파멸됩니다. 희망이 잿더미가 됩니다. 오직 비참함과 외로움과 후회만이 남는 경우가 흔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결혼 생활 안에 애정이 계속 유지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집에서 제단 위에 손을 맞잡고 현세와 영원토록 사랑과 충실과 애정을 함께 하기로 맹세했던 그를 현세나 영원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과 배우자와 자녀들은 쇠붙이와 기계 장치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안전을 알게 되며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이 그분과 가까이 하며 그분의 보호하는 손길을 받을 자격을 갖추 여러분의 생활에서 골리앗들을 물리치게 되도록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전쟁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 그는 이와 같은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사무엘상 17:45)
2. 우리 주변에는 골리앗들이 존재하며, 이 거인들은 사악한 의도를 갖고 우리 개개인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3.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를 지켜 줄 그분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세력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과 모범에의 순종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다가섬으로써 잠재적인 골리앗들을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유혹을 받으셨으나 개의치 아니하셨고"(교리와 성약 20:22)





# 구약전서에 관해 말씀하신 말일의 예언자들



요셉 스미스(1805~1844)

## 초대 대관장

“우리는 복음이 항상 동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의식도 같고, 그것을 집행하는 역원도 같으며, 약속의 표적과 결실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역시 침례를 받고 안수례에 의하여 신권에 성임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248쪽 참조)



브리감 영(1801~1877)

## 제2대 대관장

우리는 성경이야말로 ... 어떤 목적지를 가리키는 길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담대히 전파해야 하는 참된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대로 생활하고 가르침대로 행할 경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을 보이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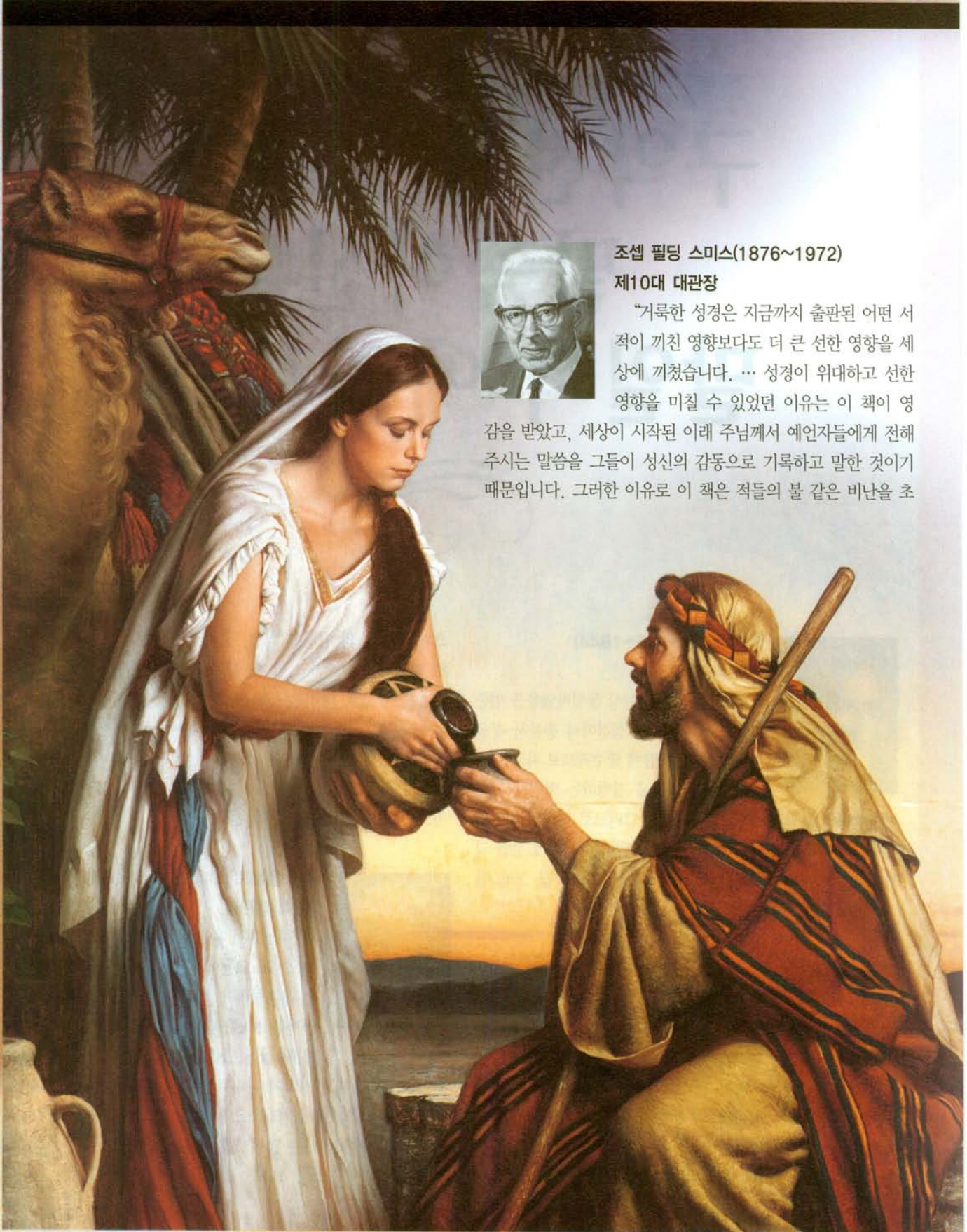
으며,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꿈과 시현, 계시를 받아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여러분에게 지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조상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음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조들이 본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들이 향유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120쪽 참조)



조지 앨버트 스미스(1870~1951)

## 제8대 대관장

“주님께서 우리의 첫번째 부모를 지상에 놓으시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권고를 주기 위해 종종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구약전서와 신약전서에는 주님의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해의 왕국에 다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고입니다. 영광스러운 왕국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대회 보고, 1937년 10월, 49쪽)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제10대 대관장

“거룩한 성경은 지금까지 출판된 어떤 서적이 끼친 영향보다도 더 큰 선한 영향을 세상에 끼쳤습니다. ... 성경이 위대하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책이 영감을 받았고, 세상이 시작된 이래 주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전해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성신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책은 적들의 불 같은 비난을 초

# 를 사 람 김 두

래했습니다. 이것이 영감 받은 기록이 아니었다면 반대 세력들은 이 책에 대해 주의를 덜 기울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 세력들은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기로 태초부터 분노로 맹세한 악의 화신으로부터 영감을 받기 때문입니다. (Seek Ye Earnestly, compiled by Joseph Fielding Smith Jr. [1972], 363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제12대 대관장**

“매우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간단한 설명과 그림이 있는 성경 이야기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책은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져, [십대 소년이 되어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서 결심을 하기 전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연사는 성경을 읽는 가치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녀는 회중에게, 성경을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수많은 회중 가운데 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머뭇거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 저는 매우 충격을 받았고 그 위대한 책을 읽어야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집에 가자마자 창세기의 첫 구절을 읽기 시작했고 매일 매일 충실하게 읽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일 년 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음을 깨달았을 때 찾아온 만족감이란!

제 영혼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

“여러분도 그렇게 해 보시길 권합니다.” (“What I Read as a Boy”, *Children’s Friend*, 1943년 11월, 508쪽)

“모임이 끝난 후 집에 가자마자 창세기의 첫 구절을 읽기 시작했고 매일 매일 충실하게 읽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일 년 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음을 깨달았을 때 찾아온 만족감이란!

제 영혼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

“여러분도 그렇게 해 보시길 권합니다.” (“What I Read as a Boy”, *Children’s Friend*, 1943년 11월, 508쪽)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제13대 대관장**

“저는 성경 즉 구약전서와 신약전서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



것은 위대한 진리의 근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구세주의 삶과 성역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지구 역사의 시작 첫날로부터 그분의 백성들의 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은 아무리 크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은 수많은 세대의 삶을 축복했습니다.” (“The Gift of Modern Revelation”, *앤사인*, 1986년 11월호, 78쪽)



**하워드 더블류 헌터(1907~1995)**

**제14대 대관장**

“경전을 읽고 공부하면 주님께서 순종과 의로운 삶을 격려하기 위해 주신 많은 조건부 약속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약의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성약들은 구약의 주요한 주제의 하나로, 예언자들과 백성들의 결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 우리가 여호수아나 아브라함, 리브가, 라헬과 같이 반응하기로 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그저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Commitment to God”, *앤사인*, 1982년 11월호, 57~58쪽)



**고든 비 힝클리 (1910~)**

**제15대 대관장**

“모든 표준 경전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구약전서는 여호와께서 고대의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전해 주고, 신약전서는 아름다운 언어로 인류의 구세주의 비할 데 없을 만큼 훌륭한 삶과 희생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The Order and Will of God”, *Tambuli*, 1989년 8월호, 2쪽)

# 계약전서를 공부하고 가르침



우리 모두는 영원한 행복의 계획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전서에는 우리에게 교사 역할을 해 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모든 개개인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남은 삶과 영원한 삶 동안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 역시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별로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비참함이나 비참함을 초래하는 이유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과 비참함의 맛을 모두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알고 있으며, 행복을 더 선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은 우리가 비참함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행복의 계획이 좋은 것임을 확신하기 위해 더 설명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행복하기를 원하므로 이러한 필요 사항이 충족된다고 느낄 때, 그 경험들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실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약전서가 과연 행복의 길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는 책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과는 동떨어진

듯 보이는 책을 읽는 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까? 한 위대한 교사가 제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 니파이이서 25~35장을 읽어 보십시오

대관장단 제1보좌였던 메리온 지 롬니(1897~1988) 부대관장님은 23년 전에 이 주제에 대해 “계약전서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글을 수차례 읽었으며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에 관하여 니파이이서 25장에서 35장까지의 내용보다 더 단순하고 명확하며 적절한 설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전서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가르치려는 사람은 누구나 이 장의 내용을 주의 깊게 공부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장들에서 니파이는 중요한 것들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체로 치듯 명확히 가려냈습니다. 또한 그는 이 가르침들이 말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계약전서에 관한 심포지엄에서)(종교 교육가들에게 한 말씀, 브리검 영 대학교, 1979년 8월 16일)

그리고 나서 롬니 부대관장님은 니파이이서 25장의 내용을 읽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지런히 기록하여, 우리들이 자녀와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권고하였음이요,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을 앎이라.



“구약에 관하여, 니파이에서 25장에서 35장까지의 내용보다 더 단순하고 명확하며 적절한 설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전서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가르치려는 사람은 누구나 이 장의 내용을 주의 깊게 공부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ISAÍAS 43:10

hay que nos dé nuevas de esto, y que nos haga oír las cosas primeras? Presenten sus testigos, y justifiquense; oigan, y digan: Verdad es.

10 Vosotros sois mis testigos, dice Jehová, y mi siervo que yo escogí, para que me conozcáis y creáis, y entendedáis que yo mismo soy; antes de mí no fue formado dios, ni lo será después de mí.

11 Yo, yo Jehová, y fuera de mí no hay quien salve.

12 Yo anuncié, y salvé, e hice oír, y no hubo entre vosotros dios ajeno. Vosotros, pues, sois mis testigos, dice Jehová, que yo soy Dios.

13 Aun antes de mí no fue formado dios, ni lo será después de mí.

14 Así dice Jehová, Redentor vuestro, el Santo de Israel: Por vosotros envié a Babilonia, e hice descender como fugitivos a todos ellos, aun a los caldeos en las naves de guerra.

15 Yo Jehová, Santo vuestro, Creador de Israel, vuestro Rey.

16 Así dice Jehová, el que se levanta del mar, y senda en las aguas profundas.

17 el que saca carro y fuerza; caen juntamente y fenecen, como pábilo que se consume.

18 No os acordéis de la memoria de la antigüedad.

19 He aquí que yo hago salir a luz; ¿no la conoceréis?

20 Las fieras del campo daré aguas en el desierto, para que beba mi pueblo.

21 Este pueblo he creado, y yo lo publicaré.

22 Y no me invocaste a mí, ni me llamaste, ni me invocaste a mí.

23 No me trajiste a mí holocaustos, ni a mí me hiciste sacrificios; no te hice servir.

24 No compraste para mí por dinero, ni me saciaste con tus sacrificios, sino pusiste de tus pecados, me fatigaste.

25 Yo, yo soy el que te liberto de tus pecados.

26 Hazme recordar, en tu memoria; habla tú para justificar.

27 Tu primer padre prevaricaron contra mí.

28 Por tanto, yo profané tu santuario, y puse por anatema tu templo, y puse por anatema tu santuario, y puse por anatema tu templo, y puse por anatema tu templo.

29 Por tanto, yo profané tu santuario, y puse por anatema tu templo, y puse por anatema tu templo.

30 Por tanto, yo profané tu santuario, y puse por anatema tu templo, y puse por anatema tu templo.

31 Por tanto, yo profané tu santuario, y puse por anatema tu templo, y puse por anatema tu templo.

44

Jehová

Ahora p...

2 Así dice J...

No temas, si...

3 Porque...

quien yo esco...

4 y bro...

junto a las...

5 Este...

llamará de...

con su me...

nombre...

6 Así...

tor, Jehó...

y yo so...

Dios.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지라도, 율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굳건히 그리스도를 바라 행하여야 하리니,

“이러한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졌으며 율법이 우리에게 죽은 바 되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하여 산 바 되고, 더욱이 계명으로 하여 우리는 율법을 지키느니라.” (니파이이서 25: 23~25)

롬니 부대관장님이 읽으라고 권하신, 니파이이서의 길지 않은 이 아홉 장을 공부하신다면—저의 의도와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전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탄식에 관한 내용을 읽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 탄식에 관한 내용들을 읽기를 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전하는 말씀들을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듯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경전을 펼쳐십시오. 가까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현자인 체하며 다가간다면 결국 더 현명하게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느껴질 때 그 탄식들은 여러분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니파이 나 이사와 같은 많은 위대한 예언자들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니파이는 그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패에 관한 그의 설명에는 성공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예언자들이 기록한 경전의 비극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전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쇠퇴와 회복의 주기에서도 희망과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7장 5절에서 니파이는 그가 시현으로 본, 이방인들의 날에 강박한 마음을 지닌 자들에 대해 한탄합니다.

“보라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깊은 잠의 영을 부으셨음이라. 보라 이는 너희가 너희 눈을 감으며 선지자를 거부하였음이라. 주께서 너희 통치자와 선견자들을 너희의 간악함을 인하여 숨기셨느니라.”

그 뒤 29장의 8절에서 구세주께서 그를 통해 주신 말씀조차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예언합니다. 니파이는 그 말씀들이 구세주에게서 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날에 그들에게 주실 꾸짖음을 전하는데, 이는 오직 선견자만이 알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의 말을 더 받게 됨을 불만스럽다 하겠느냐? 두 민족의 간증이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증거하며, 내가 그 중 한 나라를 다른 나라처럼 기억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증거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한 나라에 전한 똑같은 말을 다른 나라에도 전하며, 두 나라가 한데 합칠 때 두 나라의 간증도 하나로 합치게 되리니,

###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

니파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려움과 그 일의 중요성에 대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며,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 심판 받게 됩니다. 롬니 부대관장님은 우리가 가르치는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약속을 확증합니다.

먼저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경전을 상고해야 하되 그 뜻을 사사로이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롬니 부대관장님은 우리가 경전에 접근하는 방법들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 경전을 상고하는 것과, 이미 정해진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할 구절을 찾으려고 경전을 살살이 살피는 것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구약전서의 메시지, 2쪽)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경전을 펼치십시오.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 가면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현자인 체하며 다가간다면 결국 더 현명한 사람이 되지는 못 할 것입니다.

둘째, 질문을 갖고, 또한 찾은 답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경전을 상고한다면 더 쉽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경전이더라도 새로운 질문을 갖고 읽는다면 새롭게 느껴지는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갖고 니파이이서를 읽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약을 공부해야 학생들과 내가 함께 있을 동안, 또 이후에 우리가 홀로 시련에 마주치게 될 때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니파이이서를 공부하면서, 그 권고의 두 부분을 모두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먼저 주의 깊게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유형들, 니파이가 반복해서 말한 진리, 그가 한 번 이상 언급한 생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유형을 발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직접 찾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는 바람에서 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바는 제게 매우 유용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해야 할 일을 배우겠다는 소망으로 경전을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니파이의 가르침에서는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들은 제 질문들에 답이 되었습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예언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영과 영의 은사를 지닌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영과 영의 은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으로부터 오며, 또 그 간증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니파이는 먼저, 우리에게 지금 그리고 이후에도 필요한 것은 예언의 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니파이이서 25장의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집이여 들으라. 이사야의 말이 [너희에게] 간결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의 말씀은 예언의 영이 가득한 자에게만 간결함이라.”

그 후에 다시 그는 26절에서 예언에 관해 말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간증과 예언과의 관계를 분명히 밝힙니다. 예언의 영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예언자의 말씀이 간결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간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 예언에 따라 기록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 받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후 계속해서 니파이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거나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에 대한 확신은 점점 약해지고 그 의미도 흐려집니다. 니파이이서 28장 30절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인간을 가르치리이다. 내 교훈을 귀담아 듣고 내 권고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니,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더하여 주며, 넉넉히 가졌노라 하는 자에게서는 가진 것조차 빼앗아 버리리이다.”

그러고 나서, 니파이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다는 듯, 끝까지 견디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용기와 불굴의 정신이 필요할 것이며, 그 불굴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순종하여 여행에 필요한 희망과 자비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에게만 찾아올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니파이이서 31장 20절에 나와 있는 요건과 약속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이르시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니파이는 예언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기도로 구해야 하는 은사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니파이 자신도 거기서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니파이이서 32장 4절과 5절에서 그가 한 말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뒤에도 너희가 이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아니한 것이다. 너희는 빛 가운데로 인도되지 못하고 흑암에 이끌려 가 멸망당하리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하거니와, 너희가 주의 길에 임하여 성신을 받으면 성신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모두를 너희에게 보여 주시리니,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니파이는 기도에 대해 더 설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너희가 마음으로 염려함을 아노니, 이 일이 나를 슬프게 하여 이러한 것을 말하게 하였도다. 너희가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는 영에게 귀 기울였던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리라. 악령은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가르쳐 기도하면 안 된다 하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힘을 잃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아무것도 주 앞에 행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일이 너희들 영육에 이로운 것이 되도록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성결케 하시리이다.”

기도해야 한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난 뒤, 니파이는 모범으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33장의 4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기도를 성별하실 것을 내가 알며, 내가 기록한 바 나약한 것들을 저들에게 강하게 전하실 것을 내가 앎은 나의 말이 저들에게 선한 것을 권고함이며 저들의 조상에 대하여 알게 하며, 예수를 전하여 저들로 예수를 믿게 하며, 끝까지 견디어 영생을 얻도록 권고함이라.”

이곳에서, 제 질문에 대한 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약을 공부해야 학생들과 제가 함께 있을 동안, 또 그 이후



에 우리가 홀로 시련에 마주치게 될 때 좀더 행복할 수 있을까?  
제가 찾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과 저는 예언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을 때 예언자의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신은 그들과 제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 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받을 것이며, 불순종할 때 그 빛은 곧 거두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의 협력자가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복음대로 살 때 오는 평화와, 내세의 영생에 대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그리고 미래에, 저와 저의 학생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른 질문들에 대한 답들도 찾아보시도록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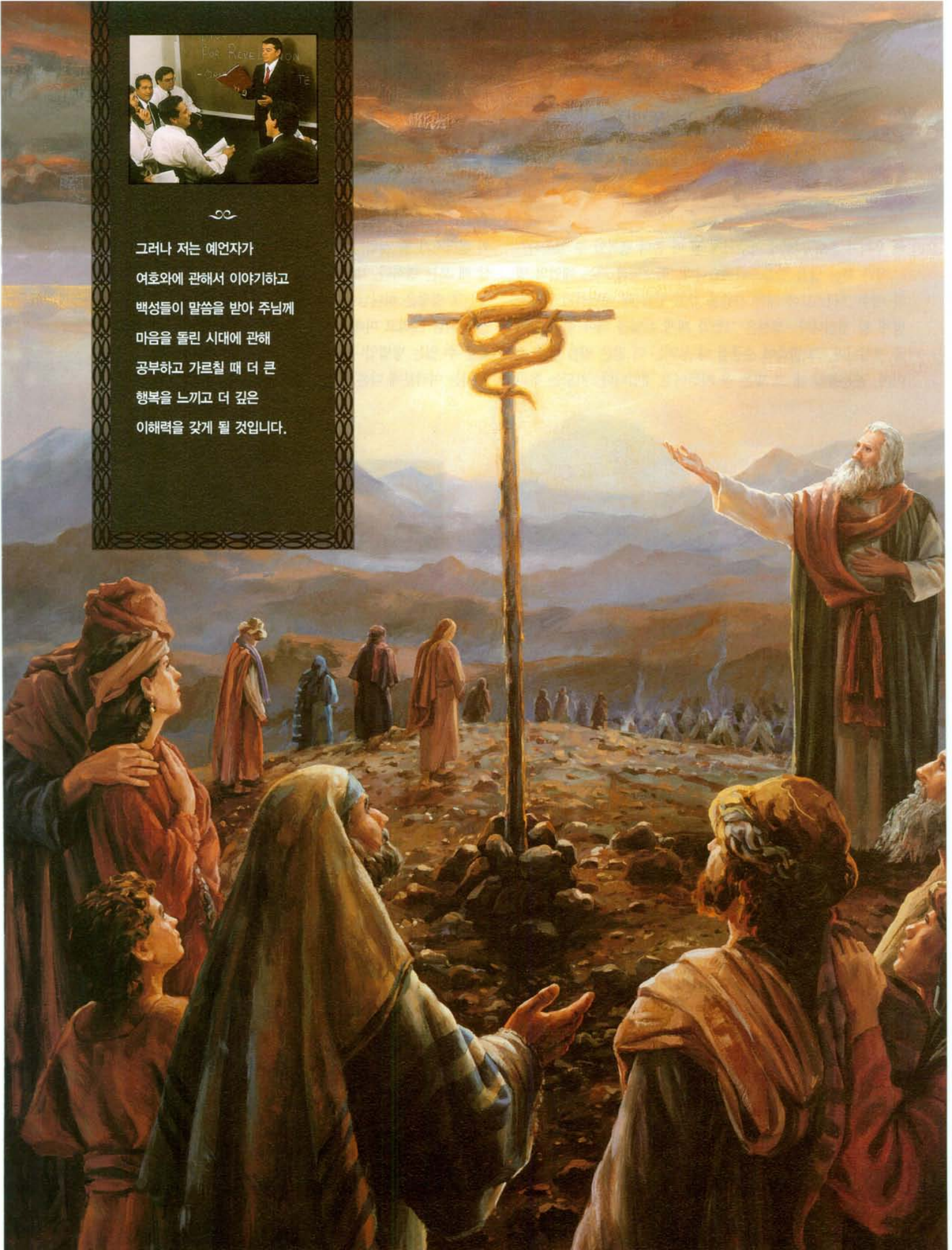


니파이는 예언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기도로 구해야 하는 은사라는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언자가  
여호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 주님께  
마음을 돌린 시대에 관해  
공부하고 가르칠 때 더 큰  
행복을 느끼고 더 깊은  
이해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 번 격려드립니다. 롬니 부대관장님은 구약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니파이가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니파이는,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 멸망을 경고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그와 다른 예언자들이 죄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고투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분명 그러한 주제들은 여러분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인 “구약전서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에서 무엇이 학생들과 나에게 가장 가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들의 실마리들입니다.

#### 구약전서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네 가지 제언

이제 제가 롬니 부대관장님의 권고에 따름으로써 배운 교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배울 수 있기를 더욱 더 열망합니다. 영이 그들의 말을 통해 저를 가르칠 수 있다고 믿는 자세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기울일 것입니다. 저를 가르치기 위해 부름 받은 누구에게서라도 배우기를 기대하면서 참석할 수 있는 한 모든 수업에 참석할 것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들을 읽고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경전을 읽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릴 것입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지만, 배우고자 굳게 결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저는 구세주와 그분의 사명에 대해 더 자주 더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은 극적인 이야기와 매혹적인 관습, 아름다운 문학의 형태로 가르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언자가 여호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 주님께 마음을 돌린 시대에 관해 공부하고 가르칠 때 더 큰 행복을 느끼고 더 깊은 이해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백성들이 약속된 인류의 구세주로부터 마음을 돌려 비참함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 슬픔을 느끼곤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마음을 돌린다면, 한 가지를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즉 영이 찾아올 것이며 여러분은 사람들의 비열한 사악함이나 가증함을 덜 느끼게 되고, 그들에게 죄악과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하시고 나아오라고 간청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사악함과 비참함

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손길을 뻗으십니다.

세 번째로 저는 예언자를 개인적으로 알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교리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아브라함서와 모세서를 읽을 것입니다.

욥과 예레미야가 어떻게 느꼈는지 알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의 성격과 예언자들이 겪었던 시련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공부할 것입니다.

제가 이미 그것을 시도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니파이의 성역이 끝날 무렵 저는 그와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니파이에서의 내용을 읽고 또 읽어 보았습니다. 구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는 더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미래에 그를 만날 때, 그는 제 눈빛에서 그에 대한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성신을 저의 동반자로 초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일이므로 다른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을 잘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저의 성품을 부드럽게 할 때 그들은 제 안에 일어난 변화를 감지할 것입니다. 제 인내심이 좀더 커졌고, 그들에 대한 저의 관심도 좀더 커졌으며, 논쟁하거나 경시하는 일이 조금 더 줄어들고 조금 더 웃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좀더 행복해졌다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저와 함께 하면서, 이전에 저와 함께 했을 때보다 더 행복한 느낌이 든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성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럼으로써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구약전서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해입니다. 이 해에 여러분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구세주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에 대해 염려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분이 구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여러분의 노력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앎으로써 기쁨의 열매를 맛보시도록 축복해 드립니다. □

1999년 8월 10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교회 교육 기구 교육자들에게 하신 말씀.



# “ 이 때 를 ”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우리는 “이때를 위”(에스더 4:14)해, 자신과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한 상호부조회 교사는 반원들에게 그들의 걱정거리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달 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 대해 걱정했으며, 어떤 이들은 쇠약해진 건강에 대해, 또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고통과 다른 어려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몇몇 자매들이 토론을 하고 난 뒤, 20 대 초반의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와드 에서 살아왔습니다. 여기 자매님들은 저의 교사이며 저의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그 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듣고 보니, 저에게도 닥쳐올 그러한 문제들을 제가 과연 잘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살아가는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앞으로 도전에 직면하고 실망을 겪게 되며 심지어 환멸까지도 느낄 수 있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걱정 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매리 엘런 더블류 스무트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기념비적인 이 시기에 ... 모든 사람은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 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자매로서, 우리는 언제나 변치 않는 경전과 예언자의 가르침,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에 순종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Sweet Is the Work[2000], 56쪽)

어려움과 근심, 일상의 분제와 걱정 에 대한 도움은 참으로 고대와 현대의 예언자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파이가 그의 가족에게 이사야의 기록을 읽어 준 것은 의아한 일이 아닙니다. “경전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 줄을 알았기 때문”(니파이일서 19:23)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예언자의 가르침을 자신에게 비추어 봄으로써 안전을 찾을 수 있기에, 우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교회의 모든 자매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의 말씀과 말일의 지도자의 권고를 상고하고 그 진리들을 생활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자매들의 경전 공부를 돕기 위해, 연차

원문 삽입: 에스더 4:14, 미네르바 케이 테이케르트 작; 사진 삽화: 스티브 번디스, 표시된 부분을 제외함

# 위 하 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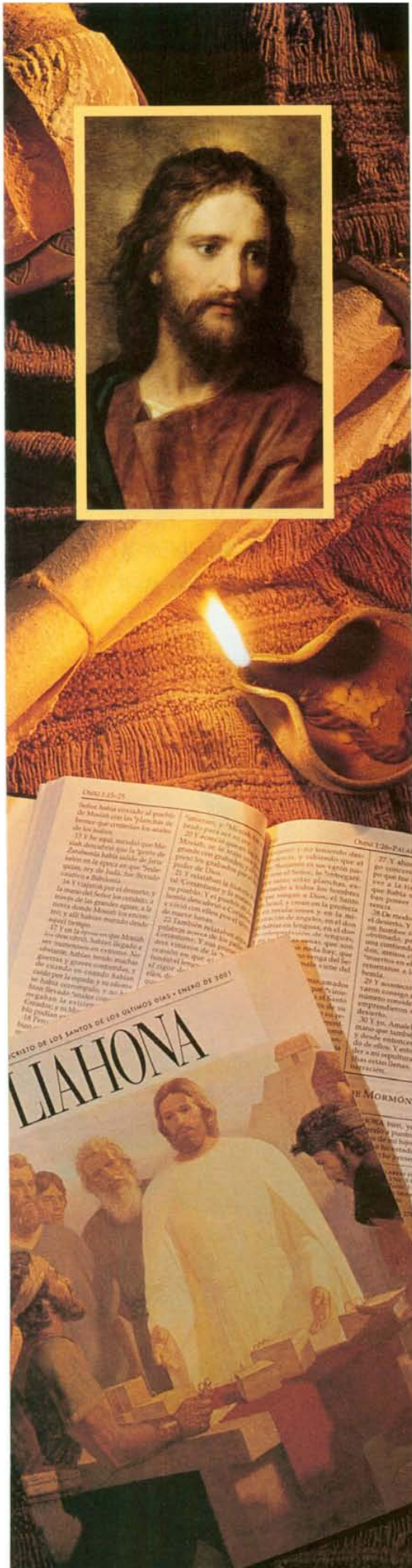
대회 특집호를 제외한 *리아호나* 매월 호에 게재될 새로운 형식의 방문 교육 메시지를 이번 호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이번 호, 24쪽 참조) 올 해의 각 메시지들은 상호부조회 선언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메리 엘런 더블류 스무트, “시온

의 딸아, 기뻐하라.”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11~114쪽) 각 메시지에는 해당되는 경전의 말씀, 선정된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한 토론을 활발하게 해주는 질문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범세계적인

규모로 서로를 방문하면서, 모든 자매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경전과 하나님의

자매들의 경전 공부를 돕기 위해,  
이번 호에서는 새로운 형식의 방문  
교육 메시지를 소개 합니다.





종들의 영감 받은 가르침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왜 방문 교육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방문 교육을 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방문할 시간을 내라고 요구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했을 때, 우리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통해 우리는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했으며,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모사 이야기 18:8~9)겠다고 했습니다.

방문 교육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특성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이는 주님의 왕국에 있는 어느 누구도 절대 혼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방법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상호부조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 궁핍한 사람의 필요 사항을 돌볼 뿐만 아니라, 시온의 어머니와 딸들의 영적인 복지 및 구원을 보살펴 주는 ... 것도 그 의무의 일부로서 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찌면 이 조직이 해야 하는 의무의 대부분일지도 모릅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85쪽)

방문 교육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보살핌과 세상적인 보살핌 모두를 제공합니다. 메시지를 나누는 일은 이 보살핌의 중심이 되며, 특히 경전의 말씀과 교회 지도자들의 통찰력에 근거한 메시지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방문을 받는 사람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영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 방문 교육 메시지를 활용함

새로운 형식의 방문 교육 메시지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는 기본 주제, 관련 성구, 예언자와 사도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의 통찰력과, 토론을 위한 질문이며,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가르치고 강화시키는 방문 교육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은 교사와 배우는 사람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에게서 배울 때 이루어집니다.(교리와 성약 50:22 참조) 자매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될 것입니다. 또한 경전과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읽고, 그 가르침들을 우리 일상 생활에 적용시켰을 때의 느낌을 나누면서 우리의 간증은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제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경험을 읽어 주기 보다는, 적절하다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이러한 통찰들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되는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자매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권유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의 질문을 활용하

여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힘

여러분은 어떤 특정한 경전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나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말해 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경전이나 교회 지도자로부터 귀중한 진리를 배울 때 영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십이사도 정원회의 날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전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인류와 그분과의 관계에

관한 진리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노래책과도 같습니다. 거기에는 부르고 들어야 할 많은 멜로디가 있습니다. ... 우리는 개인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필요한 특정한 경전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스스로 노래책을 펴고 그 음악을 들어야 합니다.”(A Time to Choose[1972], 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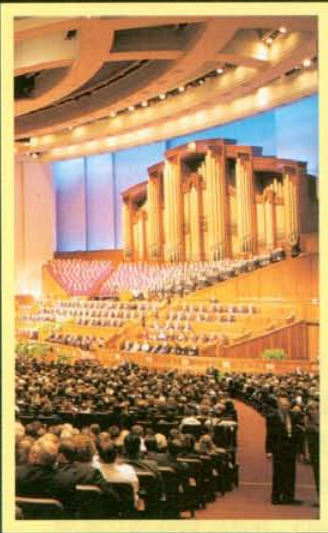
###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은

**교사와 배우는 사람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에게서 배울 때 이루어집니다.**

방문 교육 메시지의 권고에 대한 우리의 느낌과 통찰력을 나눌 때, 말일의 예언자와 교회 지도자 그리고 고대 예언자들의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경전은 변함 없으며 영원합니다. 현대 예언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리라.”(교리와 성약 1:38)

자매들이 경전의 말씀과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일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 우리 자매들의 가정에 더 큰 권세로 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제자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누가복음 24:32)

둘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커질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성스러운 기록을 공부할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희가 맺은 이 언약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니”(모사이사서 5:7)라는 것을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어머니, 할머니, 아내, 자매, 딸, 그리고 이모와 고모로서의 우리가 강화될 때, 가족도 강화될 것입니다. 영을 느낄 때, 경전 공부를 통해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자녀를 빛과 진리”(교리와 성약 93:40) 안에서 키우는 방법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자신과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말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니파이 이서 32:3 참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찾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주님께서는 우리의 오른편과

왼편에 계시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며, 그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그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감쌀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 큰 평화와 힘과 위안을 느낄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4:88 참조)

여섯째, 구세주에 대한 우리의 간증과 속죄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성결하게 되리라.”(모로나이서 10:32~33)

일곱째, 자매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우편에 살도록 들어올림을 받아 끝없는 행복의 상태로 살”(앨마서 28:12)게 될 것입니다.

상호부조회 방문 교사들이 복음의 진리를 공부하고 증거할 때, 이 범세계적인 복음 공부의 축적된 결과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자매, 모든 가족,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강화될 것입니다.

## 도전

이 새로운 메시지 형식을 통해 우리는 방문 교육에 대한 이해를 재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자매들과 개인적으로 만나, 돌봄의 관계를 갖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 모두가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



# 영광의 행복의

씀하셨듯이, “이 말씀은 인간의 것이 아니  
요, 나의 것이니, ... 이 말이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짐이라. 나의 능력  
으로써 너희는 그 말을 서로 읽어 줄 수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18:34~35)

우리의 자매들을 가르치고 교화하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하고 축복 받은 기회 안  
에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너희  
에게 계명을 주노니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교리와 성약 88:77)

젊은 상호부조회 자매가 질문했던 것처  
럼,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어려움들을 견  
디어 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전서의  
에스터 여왕이 했던 것처럼 할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도움을 구하고  
에스터가 받았던 질문인 “네가 왕후의 자  
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  
가 알겠느냐”(에스터 4:13~16 참조)라는  
말에서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방문 교사로서 서로를 돌보고, 주님의  
말씀과 영을 우리 자매들의 집에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되겠다는 새로운 결심으로 우  
리 모두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

**상호부조회 방문 교사들이 복음의  
진리를 공부하고 증거할 때,  
이 범세계적인 복음 공부의  
축적된 결과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자매, 모든 가족,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강화될  
것입니다.**



# 우리의 신성한 본질을 이해함

**방** 문한 자매들과 함께 다음 말씀을 읽고, 질문과 경전의 말씀과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토론한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누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도 간증을 나누어 달라고 권유한다.

##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상호부조회의 새로운 모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의 딸들이다.’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신의 소생, 문자 그대로 거룩한 아버지의 후손으로 그분의 속성과 삼재력을 상속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은 또한 거듭 태어나서, 타락한 육육의 모양이 의로운 것(모사이야서 27:25)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의 의미”,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20, 123쪽)

## 모사이야서 5:7

“이제 너희가 맺은 이 언약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곧 그의 아들과 딸이라 이르리라. 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너희를 영으로 낳으셨음이라. 너희는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

여 너희 마음이 변화되었다 말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나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며”

## 교리와 성약 138:38~39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1838~1918)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이 무덤에 누여 있는 동안 영의 세계를 방문하는 시현을 보았다. “이 수많은 의로운 영들과 함께 모여 있는 위대하고 강한 영들의 가운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요 만인의 아버지인 시조 아담이 있었으며

“우리 인류의 영에스러운 어머니 이브도 여러 세대를 거쳐 지금까지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왜 그렇게 행해야 하는지 이유를 이해하면서 고결한 삶을 살고, 자신의 몸을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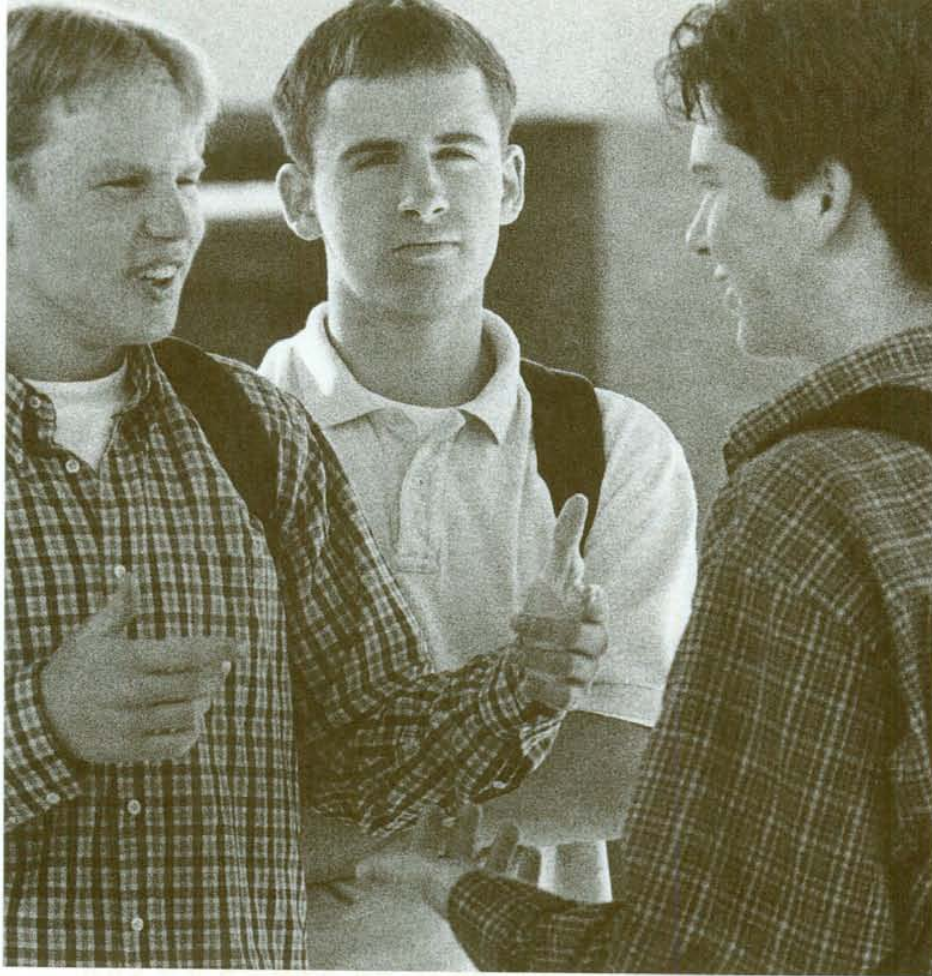
스럽고 신성하게 여겨 존중하며, 정신을 연마하고 지식의 경계를 끊임없이 넓혀, 영원한 진리로 영혼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보다, 전능하신 분의 모든 창조물 중에 더 아름답고 고무적인 것은 없습니다.(“Our Responsibility to Our Young Women”, *앤서인*, 1988년 9월호, 11쪽)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훌륭한 상속에 부합하는 삶을 사십시오. 세상의 더러움 위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자 신성한 생득권을 소유한 자녀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고개를 높이 들고 의로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은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으며, 주님 왕국의 일부이고, 다른 이들에게 맡길 수 없는,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잊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 여러분이 신성한 잠재력을 지닌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지식은 여러분이 하나님,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 독자들의 대답

저는 종종 하나님에 관한 것들과 학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대체로, 제가 편한 마음으로 있기에 가장 좋은 곳은 도서관입니다. 사탄을 당황하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로렌조 니이 아시에 미에르스  
가나 케이프 코스트 스테이크  
케이프 코스트 제2와드

저는 12살에서 16살의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거의 매일 학생들이 하는 욕설을 듣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은 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무심코 욕설을 내뱉을 경우 대개는 즉시 사과합니다.

저는 학기가 시작될 때부터,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고, 정말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인지, 정말 그런 말을 하기 원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한스 로스  
스위스 취리히 스테이크  
베팅겐 와드

제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저속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자리를 피했지만 나중에는 좀더 당당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함께 나눌 좋은 생각과 이야기도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의 생각을 부적절한 것으로 채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 친구 이벳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중지해 달라는 저의 요구를

질의 응답

# 학교에서 사람들이 부적절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 리아호나의 대답

부적절한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이 보이는 반응은 모든 상황에 대해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적절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 이야기의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말에는 험담, 비꼼, 거짓말, 저속한 이야기, 그리고 신성 모독 등이 있습니다. 때때로 친구들 사이에 필요한 것은 점잖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 특별히 그가 다른 사람에 대



## “사악한 이야기를 피하십시오.”

“사악한 이야기를 피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경솔하게 사용하는 것이 남자다운(혹은 여자다운) 것이 아닙니다.

“친구를 신중하게 사귀십시오.

여러분을 한 길에서 다른 길로 이끄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친구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친구를 따라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는 반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일 때 그들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될 것이며 여러분도 또한 그들을 구해 줄 것입니다.”

—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6~37쪽)

해 심한 말이나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때 혹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할 때 지적해 주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학생과 여러분이 잘 아는 사이가 아닌데 그의 행동을 고쳐 주려 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주제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그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에 흠이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들 주위를 떠나는 것이며,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학생들이 여러분의 친한 친구이거나 급우일 경우, 여러분은 그들의 대화가 여러분에게 듣기 거부하다고 재치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그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표준에 대해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들이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말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은 스펜서 김볼 대관장(1895~1985)이 병원에 있을 때 “그는 젊은 병원 직원에 의해서 운반대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젊은이는 잘못하여 금속 문 틀과 금속 침대 틀 사이에 손을 치였습니다. 이 불상사가 발생하자 그 젊은이는 아픔을 못 이겨 공연히 구세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예언자는 몸을 움직여 눈을 뜨고 조용히 그 젊은이를 나무랐습니다. ‘젊은이,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그분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오.’”(로버트 이 웰즈, “구세주의 친구가 되고 종이 되고 아들이 됩시다”, 성도의 벗, 1983년 1월호, 107, 108쪽) 그러한 꾸밈음에 누가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가장 유용한 권고는 영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순종할 준비를 하십시오. 때로 올바른 응답이 오지만 그것에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경우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 주시면 **질의 응답란**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을 2002년 4월 1일까지 다음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WSTIONS AND ANSWERS 04/02,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로 타자하거나 정서하면 됩니다. 성명,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지부 및 지방부) 명칭이 적혀 있는 응답만 채택됩니다. 사진은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받은 편지 가운데 몇 가지를 선택하여 신도록 하겠습니까.

**질문:** 제 친구들은 제가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거절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려 하면 이벳은 제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곤 합니다. 때로는 저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납니다. 나중에 그녀는 전임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스웬니 밀라그로스 세다노 데 프랑코  
과테말라시티 과테말라 비야 헤르모사 스테이크  
비야 카날레스 지부

한 번은 학교에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반 친구들에게 주제를 바꿀 수 없느냐고 친절한 태도로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거절했을 때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후에 그들은 저를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관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교회가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반 친구들은 제 앞에서 부적절한 주제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베렌디나 안티에 와치메스테  
네덜란드 아펠두른 스테이크  
아펠두른 와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감옥에 있을 때 그는 간수들이 끔찍한 말들을 하는 것들을 들은 후에 그들이 용서를 빌 만큼 힘있는 말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할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줄리아나 올리베이라  
주스티아나 브라질 캄피나스 카스텔로 스테이크  
바라오 제랄도 와드

우리는 사랑으로 친구들에게 다가가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부적절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포우오노 라메코  
사모아 우폴루 팔레아시우 스테이크  
파시투 우타 와드

학교에서 우리는 모범의 빛을 보일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얻습니다.(마태복음 5:16 참조) 친구와 급우들이 저속한 말을 할 때, 우리는 점잖게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우리의 신념을 조롱할 수도 있겠지만 또다른 친구들은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페데리코 말라라  
이탈리아 베르첼리 지방부  
알레산드리아 지부

우리는 반 친구들에게 주제를 바꾸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꾸지 않을 경우, 여러분은 그 자리를 떠나 유익한 것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을 갖는 것이 복음의 표준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카테리나 트루히오  
플로리다 폼파노 비치 스테이크  
코코넛 크리크 와드

사람들이 부적절한 것에 관해 이야기할 경우,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합니다. 그런 다

음 그들에게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축복에 대한 제 간증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을 때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세리 잔 클라우드  
아폴리아이크  
아이보리코스트 아비아  
스테이크  
토이크 루그 와드

반 친구들의 언어와 행동으로 인해 제 고등학교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저는 부적절한 대화를 듣지 않기 위해 복도로 나가곤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부적절한 말을 하려 하자, 제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예사벨이 있잖아." 그들은 제 표준을 존중하기 시작했으며 저는 그들 가운데 두 명에게 물문경을 전해 줄 수 있었습니다.



예사벨 다나 알바레스  
아르헨티나 산타페 북 스테이크  
마요라스 와드

예언자는 우리에게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당신보다 내가 더 기록하다는 듯한" 태도를 지니지 말도록 권고했습니다. 모든 대화에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나누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케니 리차드 오주라리  
나이지리아 라고스 선교부  
아테물레군 지부 □

# 말 이상 의

어느 토요일, 나는 거실에서 교리와 성약 20편을 펴 놓고 앉아 있었다. 77절과 79절에 있는 성찬 기도를 천천히 읽으면서 기억하여(remembrance), 계명(commandments), 성결케(sanctify) 등과 같은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에 밑줄을 그었다.

나는 와드에서 나이 많은 제사에 속했으며 성찬을 축복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성찬을 집행하는 동안 경건한 영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나는 늘 기도의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읽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제사 정원회 고문으로부터, 최근에 정원회의 회원이 된 매트가 처음으로 성찬 축복하는 일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나는 그가 기도를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내가 아홉 살 때 우리 가족이 매트의 이웃으로 이사 온 이래 나는 그를 알고 지내 왔다.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는 매트는 내 또래였으며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나는 매트가 아론 신권을 받고, 교회 농구 팀에서 경기를 하고, 스카우팅과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켜보며 너무나 기뻐했다. 그러나 발음을



# 것

피터 비 가드너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매트가 신권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는 의문스러웠다.

매트가 함께 성찬을 축복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 우리 집에 왔을 때 그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피터, 있지, 다음 주에 형이 귀환한대. 너무 신이 나.” 하고 그는 흥분해서 말했다.

“그거 잘 됐구나, 매트.” 그가 처음으로 성찬을 축복하는 날이 그의 형이 선교사 귀환 보고를 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의 친척들도 참석할 것이다. 그날이 매트와 그의 가족에게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랐다.

축복문을 읽는 연습을 하는 동안 이 신권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려는 매트의 결심에 나는 감명을 받았다. 우리는 축복문을 여러 차례 읽었으며, 밑줄 친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했다. 연습을 마쳤을 때, 매트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며 축복문을 다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의 발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일주일 후, 성찬대 앞에 매트와 함께 앉았을 때, 나는 마음이 불안했다. 매트의 가족과 친척들은 예배당 앞 자리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흥분과 격려의 빛으로 차 있었다. 그들에게 미소로 응답하는 매트는 나만큼 긴장되어 보이지는 않았다. 우리는 하루 전 날, 축복문 읽는 연습을 다시 했으며, 나는 빵을 떼고 성찬기를 집사들에게 건네주는 절차를 설명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알려 주어야 할 것 중에 빠뜨린 것이 있거나 않은지 혹은 그가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성찬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빵을 떼기 시작했다. 매트는 엄숙한 표정으로 빵을 똑같은 크기로 떼어 성찬기에 끌고루 퍼 놓았다. 그는 언제 다시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내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찬송가가 끝나고 나는 매트에게 “무릎 꿇을 시간이야.” 라고 속삭였다. 우리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매트는 주의를 기울여 주의 깊게 떡에 대한 축복문을 읽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를 드릴 때 나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매트가 축복문을 읽을 때 나는 영이 임하여 이 성스러운 의식의 중요성을 증거해주는 것을 느꼈다. 매트가 기도를 마쳤고 우리는 일어서서 집사들에게 성찬기를 건네주었다.

자리에 앉아서 나는 매트의 가족과 워드 친구들로 가득 찬 회중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들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축복문이 분명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영을 느꼈으며 매트의 봉사하고자 하는 의욕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장로가 된 매트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고 있다. 그는 음악 지휘를 하고 신권회 개회 순서에서 기도를 할 사람을 선택한다. 또한 스카우트 대장 보조와 스테이크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정기적으로 성전에도 참여한다.

나는 교리와 성약 20편을 펼칠 때마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매트의 결의를 생각하게 된다. 구세주를 섬기고자 하는 매트의 모범은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성찬 축복문이 말하듯 “항상 그를 생각”(교리와 성약 20:77)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

피터 비 가드너는 유타 오림 레이크뷰 스테이크, 레이크뷰 제1와드 회원이다.

# “너는 승리할 것이다”

**고** 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에서 골리앗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거인은 세상에서 점점 커가고 있는 악의 형태로 올 수도 있으며, 순전히 개인적으로 맞게 되는 도전과 어려움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윗이 혼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어려움에 혼자 맞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정복하려 하든,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처럼,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썼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지켜 줄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굳건히 서서 본분을 지킨다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싸워 이긴 여러 전투를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이번호, 5쪽 참조)

## 피라냐가 있든 없든

라미로 루이스 세자

**볼** 리비아 코차밤바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동안 동반자와 나는 비야몬테스(현재 볼리비아 산타 크루스 선교부의 일부)에서 봉사하라는 지명을 받았다. 이 외딴 시골 마을은 볼리비아 동남쪽에 위치해 있었고, 가장 가까운 큰 마을로부터는 90킬로미터쯤 떨어져 있었다. 비야몬테스에는 침례당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근처에 있는 필코마요 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다.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거두었으며, 강에서 꽤 여러 명에게 침례를 줄 수 있었다. 피라냐에 대한 소문을 듣기 전까지 그곳은 좋은 장소로 보였다. 육식성 물고기가 모여드는 강에서 허리가 물에 잠기도록 서 있는 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중요한 의식을 행할 다른 장소가 없었다. 우리는 그 소문을 무시했으나 한 교회 회원은 실제로 물고기를 잡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피라냐의 날카로운 이빨을 본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사업을 계속해야 했으며 우리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 다음 주에 있었던 침례식에서는 장마비로 강이 위험 수위에 달했고 통나무

주님의 사업은 계속되어야 했으며 우리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필코마요 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다.





와 막대기 등의 장애물들이 떠나려 와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했다. 우리는 침례를 줄 다른 장소를 찾아야 했다.

며칠 후에 우리는 한 회원이 갖고 있던 작은 물탱크에서 침례를 행하기로 했다. 물탱크가 너무 작아서 두 사람이 들어가 침례를 집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개종자와 신권 소유자는 함께 물탱크 안으로 들어갔으며 개종자는 침수로서 침례를 받았다.

다음 주에도 침례가 있었지만 물탱크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시멘트 욕소에서 침례를 집행했다. 다시 한번 개종자와 신권 소유자는 조그마한 임시 침례탕으로 들어갔다. 침례를 받는 소년은 물에 잠기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 침례식을 마친 후에 우리는 앞으로 침례식을 행할 장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음 일요일에 침례를 받기로 한 사람이 세 명이나 더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다급했다. 다행히 지방 대회가 야쿠이바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며 그곳 집회소에는 침례탕이 있었다. 우리는 침례를 받기 위해 그곳까지 여행을 했다.

침례식에서 선교부장은 비야몬테스의 교회가 성장하고 있으므로 그 작은 마을에 침례탕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너무 기뻐했다.

비야몬테스에서의 경험으로, 우리는 열심히 일할 때 주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항상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의 사업은 피라냐가 있든 없든 계속 전진할 것이다.

*라미로 루이스 세자는 리스 대학교 제 3 스테이크, 제 44와드 회원이다.*

## 내가 해야 했던 중요한 일

타이스 마르틴스 레알

1999년 11월 어느 저녁, 가정의 밤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 무렵,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다음 주가 금식주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우리 가족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금식할 것인지를 물었다. 어머니는 "아직은 잘 모르겠구나."라고 대답하셨다.

갑자기 나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로서 금식과 기도를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10시가 되어도 잠을 이룰 수 없었으므로 부모님의 방으로 갔다. 그 날 밤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는 잠시 책을 읽는 것이 어떠냐고 하시며 나중에 내 방 불을 꺼 주시겠다고 하셨다. 다시 내 방으로 돌아온 나는 교과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다음 날까지 마쳐야 할 숙제에 필요한 내용을 그 책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다른 책에서는 찾을 수 없던 내용이었다.

숙제를 마쳤을 때, 시간은 11시쯤이 되어 있었다. 책과 숙제를 책상에 올려놓고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몸과 마음이 피곤했는데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머리를 약간 들었는데, 쌓여 있는 책 사이에 많이 구겨진 대관장단 메시지의 첫 장이 빠져 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1995년 11월호 리아호나(포르투갈어)를 꺼내어 대관장단 제2 보좌인 제인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의 "주님을 섬기고 사탄을 물리침"을 읽기 시작했다.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은 "금식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었다.

기사를 다 읽고 나서 나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 금식하고 기도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런 다음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시 잠을 자려 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리아호나를 다시 집어들고 책장을 넘겼다. 바로 그 다음 기사의 제목은 "나의 기적"이었다. 이 기사가 축복사의 축복을 받은 한 청년의 경험에 관한 것임을 알았을 때, 나는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으려면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에 감독님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감독님은 내가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그 청년의 기사를 읽고 나는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해했다. 이 일에 대해 나는 기도하거나 금식해 보지도 않았던 것이다. 기사를 다 읽고 나서,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다. 생전 처음으로, 성신의 임재하심을 느꼈다. 기도를 드린 후에, 책을 내려놓고



잠을 잘 수 있었다.

나는 기도하고 고대하며 일주일을 기다렸다. 일요일에는 금식을 하고 감독님을 찾아갔다. 나의 경험을 듣고 나서 감독님은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 것 같구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께서 내가 금식과 기도에 대해 배우고, 축복을 받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무척 기뻐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축복사의 축복을 주신다.

*타이스 마르틴스 레알은 브라질 쿠리티바 포르타요 스테이크 포르타요 와드 회원이다.*

##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주셨다

젼마 오만다크 타임

나는 가족과 함께 1995년 2월 5일에 필리핀 제너럴 산토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 당시 나는 고등학교 1학년 생이었으며 풍족한 생활을 했다. 부모님께서 내게 좋은 것들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며 나는 사립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아버지는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하셨으며 어머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슬 톱 사업을 관리하셨다.

우리 가족은 일곱 명이였다. 우리는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지만 일요일 예배와 다른 활동이 있을 때마다 늘 교회에 갔다.

사슬 톱 기술자가 자르던 코코넛 나무 한 그루가 매우 비싼 지프차 위로 넘어졌다. 지프차의 주인은 몹시 화가 나서 망가진 지프차를 전액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많은 돈이 없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휴가를 내셔서 어머니의 일을 돌보시고, 어머니는 오빠, 언니 그리고 나와 함께 학비를 내려 학교에 가야 했다. 그날 어떤 사람이 코코넛 나무를 베기 위해 우리의 사슬 톱 기술자를 고용했다. 아버지는 그 일을 감독하셔야 했다.

학교에 있는 동안 코코넛 나무 하나가 매우 비싼 지프차 위로 넘어졌다. 어머니는 재빨리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지프차의 주인은 몹시 화가 나서 망가진 지프차를 전액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어머니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꼈다. 우리에게는 그 많은 돈이 없었다. 아버지

는 조기 퇴직을 신청했으나 퇴직금으로는 손해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다. 기술자는 구급되었다. 우리는 소유하고 있던 사슬 톱과, 집, 땅, 그리고 다른 소유물들도 빼앗겼다. 한 순간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아버지는 우리를 떠나기로 결심했고 나머지 가족들은 홀로 남아서 이 난관을 맞아야 했다.

우리 모두에게 몹시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는 신앙과 희망을 잃지 않았다. 어머니가 법정에 출두해야 했던 날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했다. 금식과 기도는 어머니에게 위안을 주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심지어는 머리를 가릴 지붕 하나 없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도와 주셨다. 주님은 감독님을 통해 우리를 도와 주셨다. 감독님은 우리를 그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살기로 했다. 후에 다른 한 회원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그의 집에 머물라고 했다.

새 학년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오빠, 언니 그리고 내가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기도, 신앙, 그리고 소망을 통해 우리는 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다니던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나는 그때 내 생애의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충실하고 기도하고 순종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도와 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 가족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 나는 우리가 계속해서 계명에 순종한다면, 계속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젼마 오만다크 타이은 필리핀 제너럴 산토스 스테이크, 폴로몰록 와드 회원이다.*

##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게리 프루덴시오 파브로스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나는 세상살이가 힘들었으며 때로 낙담했다. 불쾌한 편견과 마주해야 했던 십대 초기에는 특히 힘이 들었다. 1989년 5월, 열세 살이었을 때, 마을에 있는 중학교에서는 내가 휠체어를 타야 하는 신체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나의 입학을 거절했다. 중학교 1학년 때, 한 교사는 실망스러운 점수를 주었다. 신체적인 장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나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불쾌한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으며, 그것들이 내게 주는 교훈에 대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기도와 경전 공부를 통해,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동시에 나를 거부하고 낙담시키는 사람들을 선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12장 7~10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나는 그가 자신을 대적하는 적들을 자신을 치는 “사탄의 사자”에 비유한 것을 읽었다. 그는 주님께 이러한 고통을 제거해 주시도록 간구했으나 주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구세주의 격려를 느꼈으며, 그 격려를 통해 나의 신체적인 장애에 대하여 그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993년 3월 27일, 나는 우등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시장은 나에게 시청에서 근무하도록 제안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나는 언론에 관한 직업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신체적인 장애와 어려움에 대처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신앙과 결의와 주님의 영감을 통해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10)라고 말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게리 프루덴시오 파브로스는 필리핀 마카티 스테이크 만달루용 제1와드 회원이다.*

## 어머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세요

아틸슨 호세 오르타

**19**92년 10월 어느 날, 케이프 베르데에 있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맨 두 젊은이를 보았다. 나는 그들에게 말을 걸기로 했다. 대화하는 동안 그들에게서 발산되는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과 그들이 다니는 교회의 이름을 말해 주었다. 교회의 이름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갖고 있던 가족 사진을 보여 주었다. 또한 우리 집으로 가서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이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친절했지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토론이 너무 재미있었다. 할 때마다 매번 그 이전 토론보다 더 재미있는 것 같았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간증과 회복된 복음에 대한 소식은 내가 들어 본 것들 중 가장 놀라운 메시지였다. 그들은 참으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결국, 선교사들은 침례에 관해 언급했다. 어머니는 내가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침례 받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려 했다.

나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 공부했으며 모든 교회 모임과 활동에 참석했다. 그러나 또한 어머니의 뜻에 순종했다. 장로들은 여러 차례 어머니에게 침례 받는 일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했지만 어머니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어느 날 성찬식에서 한 자매 선교사가 기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했다. 그녀의 말은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나중에 집에 와서 나는 그녀가 한 말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 성신의 속삭임에 따라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옥상 위로 올라가 내 마음을 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소리를 내어 기도를 드렸다. 교회에 속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며 어머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침례 받는 일을 허락하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도였다. 그런 다음 집 안으로 내려가 어머니와 함께 침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는 한 마디 반대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네가 바라는 것이라면 침례를 받거라.” 나의 마음은 행복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찼다. 그분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의심 없이 알게 되었다.

나는 1993년 2월 13일에 케이프 베르데 상티아고 섬에서 침례를 받았다. 일 년이 조금 지난 후, 간절한 많은 기도 끝에 가족 중 두 명인 에드나 고모와 아나 고모

**기도를 마친 다음, 집 안으로 내려가 어머니와 함께 침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에게 침례를 줄 수 있었다. 1994년 6월에 나는 생애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 바로 어머니에게 침례를 준 것이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랑이 많고 친절하신 분이다. 그분은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

아딜슨 호세 오르타는 케이프 베르데 프라이아 지방부 프라이아 제1지부 회원이다.





# 해롤드 비 리

## 위대한 교사

브렉 잉글랜드

제11대 교회 대관장의 모범에서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  
주님과 경전에 의지하는 자세를 배우게 된다.

**19**70년 4월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폭발 사고로 고장이 난 아폴로 13호가 세 명의 우주 비행사를 싣고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오기 위해 시도하는 장면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켜보았다. “온 세계가 한 가지 중요한 결과, 즉 용감한 세 사람이 지구로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듯 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그는 한 가지 중요한 복음의 교훈을 찾아냈다. “세 사람의 안전은 이제 ... 기술자들이 제공하는 모든 지시들에의 ... 절대적인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주선인] 지구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교사였던 리 대관장은 이 극적인 사건과,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가기 위해 그분께 귀기울이고 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 사이에서 유사점을 찾아내었다. 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아폴로 13호]에 있던 우주 비행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귀기울여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주님의 길 안에서 궁극적인 안전과 보호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의 곧고 좁은 길을 따르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리 대관장이 다른 주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 길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의 일생의 과업이었다.

교회 제11대 대관장으로서 리 대관장은 1972년 7월에서 1973년 12월까지 단 17개월간 봉사했으나, 그가 미친 영향력은 그 짧은 기간을 넘어섰다. 그는 1930년대에 교회 최초의 복지 프로그램을 감독했고, 31년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했으며, 신권의 감리 아래 교회의 모든 행정 부서, 보조 조직, 그리고 기구들을 모으려는 목적으로 1960년대에 시작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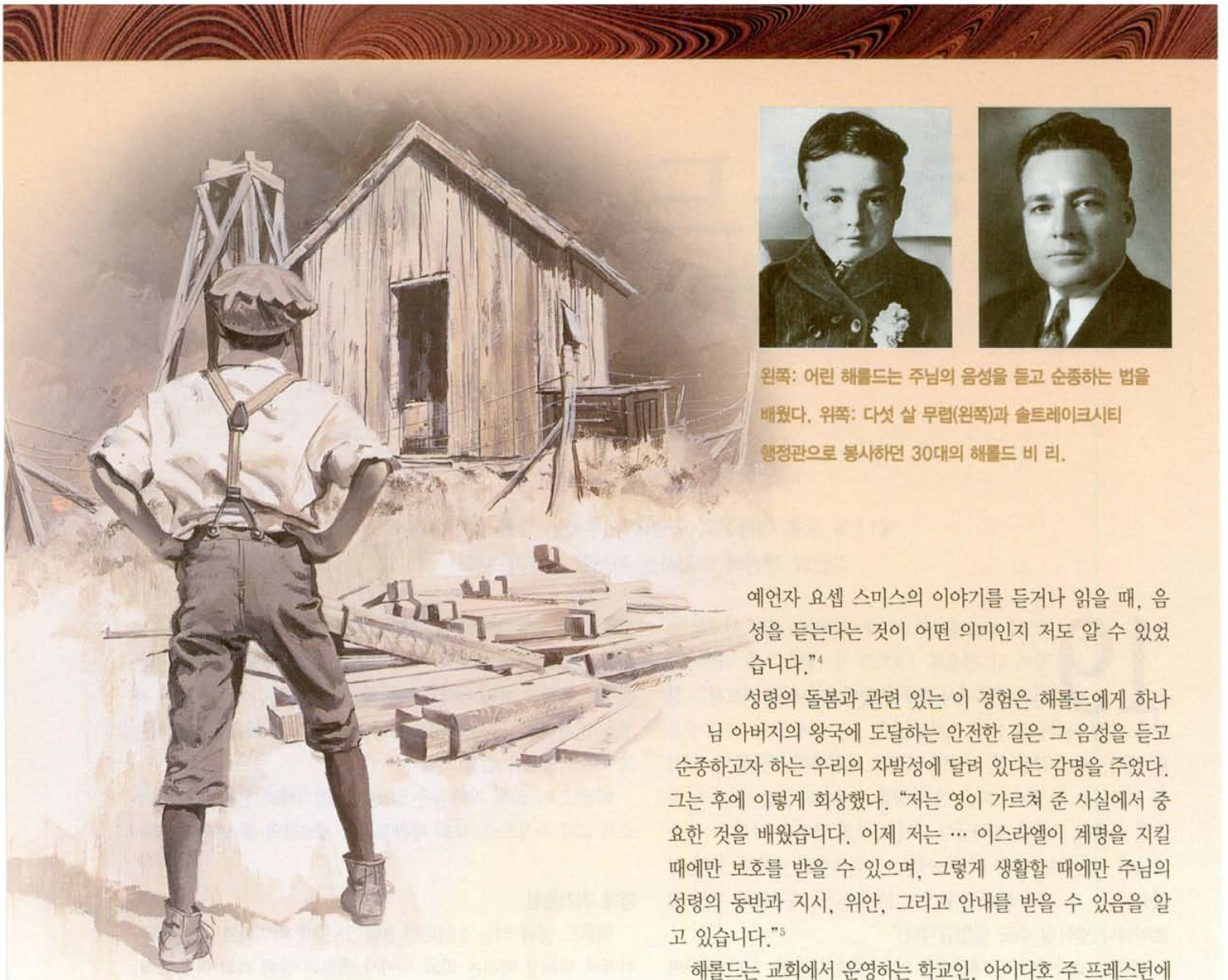
상호 연관 프로그램을 주관했다. 상호 연관 프로그램의 의도는 가족 및 가정을 강화하고 지원하여 가족 및 가정이 영생이라는 신성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경전을 배우는 학생이요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해롤드 비 리의 가르침은 2002년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으로,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의 세 번째 편이다.

### 영에 귀기울임

해롤드 빙햄 리는 1899년 3월 28일에 아이다호 주 클리프턴에서 새뮤엘 매리온 리와 루이사 에밀린 빙햄 리의 아들로 태어났다. 클리프턴은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로 축복을 받은 계곡에 위치한 농촌으로, 상점과 비포장 도로가 하나 있을 뿐이었다. 이 땅의 그러한 평화로움은 이 어린 소년이 일생 동안 그를 인도하게 될 고요하고 조그만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가족 농장과 과수원을 돌보고, 소젖을 짜고, 피아노를 배웠다.<sup>2</sup>

그의 부친이 감독이었기 때문에 어린 해롤드는 교회 복지가 운영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기록했다. “지금처럼 당시에도 감독에게는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필 책임이 있었습니다. 리 감독은 자신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물품들은 그의 식료품 창고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밤이면 그가 밀가루 한 부대를 꺼내는 것을 보곤 했으나, 그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기밀은 엄격히 지켜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왼쪽: 어린 해롤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위쪽: 다섯 살 무렵(왼쪽)과 솔트레이크시티 행정관으로 봉사하던 30대의 해롤드 비 리.

어린 해롤드는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경험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것의 의미를 배웠다. “제가 열 살이나 열 한 살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 아버지께서 집에 가실 준비가 될 때까지 저는 이리 저리 할 일을 찾으며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던 곳 근처의 울타리 너머에는 소년의 호기심을 발동시킬 만한 다 쓰러져 가는 헛간들이 있었습니다. 모험심이 많았던 저는 울타리를 타넘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쪽으로 가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인가 싶어 뒤를 돌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참 멀리 떨어져, 발 저편 끄트머리에 계셨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린아이였던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분명한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듣거나 읽을 때,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도 알 수 있습니다.”<sup>4</sup>

성령의 돌봄과 관련 있는 이 경험은 해롤드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 도달하는 안전한 길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발성에 달려 있다는 감명을 주었다. 그는 후에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영이 가르쳐 준 사실에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 이스라엘이 계명을 지킬 때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생활할 때에만 주님의 성령의 동반과 지시, 위안, 그리고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sup>5</sup>

해롤드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인, 아이다호 주 프레스턴에 있는 오네이다 아카데미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훗날 제13대 교회 대관장이 된, 인근 휘트니 출신의 에스라 태프트 벤슨(1899~1994)은 그의 급우였다. 이 학교의 합주단에서 해롤드는 트럼본을 연주했다. 졸업을 한 후에, 그는 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아이다호 주 앨비온에 있는 앨비온 주립 사범 학교에서 공부했으며, 17세에 교사 생활을 시작하여, 18세에 아이다호 주, 옥스퍼드에 있는 지방 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21세에 그는 미국 서부 선교부에서 봉사했고, 그곳에서 덴버 컨퍼런스를 감리했다. 그곳에서 봉사하는 동안, 그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온 선교사 편 루신다 태너를 만났는데, 그녀는 “동료들에게 총명하고, 아름답고, 경전에 대해 매우 비범한 지식을 지닌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sup>6</sup> 선교 임지에서 귀환하자 그는 곧 그녀에게 청혼했으며 트럼본을 팔아 약혼 반지를 샀다. 두 사람은 1923년 11월 14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결혼했으며 곧 두 딸, 모린과 헬렌이 태어났다.





왼쪽 위: 해롤드 비 리가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을 받았던 1941년의 리 가족. (왼쪽 부터) 편 태너 리 자매, 딸들인 헬렌과 모린, 리 장로. 오른쪽 위: 두 번째 아내 프레더 조운 젠스 리와 함께 한 해롤드 비 리.

이 가족은 솔트레이크시티에 가정을 꾸렸는데, 그곳에서 리 형제는 학교에서 가르치면서도 틈틈이 일을 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어느 해 여름에는 내쉬 자동차를 판매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ZCMI 식료품 부서와 베네프 가스 정유 회사에서 일했습니다.”<sup>7</sup> 그러다가 그는 영감을 주는 책들을 출판하던 Foundation Press의 영업 사원이 되었다. 그는 학교 교사직에서 사임하고 그 회사의 미국 서부 지역 영업을 관리하게 되었다.

1930년대 초에 해롤드 비 리는 솔트레이크시티 행정관으로 일했다. 그는 취임 첫 해에, 비용을 줄이면서도 대민 봉사를 향상시키는 경제적이고 유능한 공무원으로 명성을 얻었다.<sup>8</sup>

### 성도들을 위해 일함

31세의 나이로 솔트레이크시티의 파이오니어 스테이크장으로 부름 받으면서 리 스테이크장은 그 당시 가장 나이 어린 스테이크장이 되었다. 때는 1930년이였다. 전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시작되어, 파이오니어 스테이크의 7300명의 회원 가운데서 4800명 이상이 도움을 필요로 했다. 리 스테이크장은 해야 할 바를 알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 성신의 영감에 귀기울여, 그는 클리프턴에 있던 부친의 와드 창고를 본 판 스테이크 창고를 세웠다. 더 나아가 그는 스테이크의 대형 농장 관리나 스테이크 체육관 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마련

해 실직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sup>9</sup>

리 스테이크장의 지도력에 감명을 받은 대관장단은 암울한 경제적 상황이 교회 구석 구석에 영향을 미치자, 1935년 어느 날 아침 그에게 새로운 복지 계획을 맡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그것이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자체적으로 돌볼 수 있게” 하는 계획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 즉시 주님의 지시를 간구했다. “그날 아침 이후 제 차를 타고, 로타리 공원이라고 불리는 시티 크리크 캐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제 평생에 가장 겸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저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대관장단이 제게 주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직을 세워야 합니까? 그 영광스러운 아침에, 저는 하나님의 신권의 권능에 대한, 하늘로부터 오는 가장 신성한 깨달음 중의 하나를 얻었습니다. 무엇인가가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줄 새로운 조직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권을 행사하는 것이니라.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느니라.’”<sup>10</sup>

곧 스테이크 농장들이 세워지고, 공장과 창고가 건설되었으며, 궁핍한 교회 회원들이 신권의 지시 아래 일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영을 통해 해롤드 비 리에게 전해진 지식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6년 동안 복지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던 1941년 4월 6일에 해롤드 비 리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로서 그가 했던 “깊이 있는 복음 설교”에 관해서, 그의 딸 헬렌은 이렇게 회상한다. “아버지는 미사 여구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솔직 담백하게 말씀하셨죠. 순종과 경전이 기준이었습니다. 놀라운 만큼의 투명함을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느낌

맨위: 1933년경의 파이오니어 스테이크 및 솔트레이크 스테이크의 감독의 창고, 해롤드 비 리는 파이오니어 스테이크의 스테이크장으로 봉사했다. 원내: 리 장로(왼쪽)는 1949년에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인 매리온 지 롬니 장로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하이브 클로딩 밀즈를 방문했다. 아래쪽: 해롤드 비 리는 부친의 외드 창고를 본떠서 스테이크 창고를 만들었다.

이 어떤지 알게 하셨어요. 자신을 나누어 주셨죠. 아버지의 설교에서는 경전과, 말씀의 주제를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sup>11</sup>

그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경전에서 찾았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경전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 경전에서 말씀의 주제를 택해야 합니다. 만일 진리를 측정하고 싶다면, 저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4대 경전으로 그 진리를 측정해야 합니다.”<sup>12</sup>

수년 동안 리 장로는 사도로서, 솔트레이크 성전의 이층 방에서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들을 만나 그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모임과, 그가 경전에 대해 갖고 있던 신뢰에 대해 기억한다. 이 모임들이 끝날 무렵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린 모든 답들은 경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문들에 대하여 저는 감히 경전이나 교회 대관





장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에 근거해서 답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sup>13</sup>

### 가족을 이끄는

가정에서 해롤드 비 리는, 수년 후에 잘 알려지게 된 그의 권고대로 생활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될 가장 중요한 주님의 사업은 여러분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딸들이 그에게 복음에 관한 질문을 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얘들아, 경전을 꺼내 오거라. 그 문제에 대해 주님께서 무어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자.” 그리고 나서 그는 딸들에게 경전에서 바로 찾은 내용을 가르쳤다. 딸 헬렌 리 고아츠는 이렇게 기억한다. “저는 나중에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맨 먼저 답을 구해야 할 곳은 경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sup>15</sup>

**맨위: 1942년의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 해롤드 비 리, 실베스터 큐 캐넌, 앨버트 이 보우인, 찰즈 에이 캘리스, 조셉 에프 메릴, 존 에이 윌소, 리처드 알 라이만, 스티븐 엘 리처즈, 조셉 필딩 스미스, 조지 에프 리처즈, 루드거 클로슨. 빠진 사람: 조지 앨버트 스미스.**  
**원내: 1965년의 십이사도 정원회 (왼쪽부터): 고든 비 힝클리,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토마스 에스 몬슨, 스펜서 더블류 김볼, 해롤드 비 리, 조셉 필딩 스미스, 매리온 지 롬니, 리처드 엘 이반스, 리그랜드 리처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가족 기도에 관해, 헬렌은 이렇게 회상한다. “밤의 의식은 거실에서 우리 네 식구가 다 함께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로 시작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우리 둘을 양팔에 한 명씩 안고 침대까지 데려다주셨어요. 우리는 차가운 마루 위를 걸어갈 필요가 없었죠.”<sup>16</sup>



연차 대회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가운데) 및 대관장단 제2보좌  
앤 앨든 태너 부대관장과 함께 한 대관장단 제1보좌 리 부대관장

리 가정의 평온함은 아내 편 태너 리가 보여 준 헌신의 결과였다. 딸 헬렌은 이렇게 회상한다. “아버지께서는 활동적이셨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분이셨죠. 어머니는 자신이 평온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느끼셨어요. 아버지는 사회 활동이 많으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가정에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드셨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께서는 걱정에서 벗어나 평안과 휴식을 찾으셨습니다. 거의 어머니의 영향으로 인해 사랑의 영과 고요함이 존재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대단히 영적이셨어요. 또 품위 있는 생활 감각과 따뜻함, 사랑, 차분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일도 많았다. “아버지께서는 피아노 행진곡을 암기하고 계셨죠. 아버지가 ‘Midnight Fire Alarm’ 을 연주하시면 우리들은 거실 주위를 행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열정적인 연주로 피아노가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 신권을 강화함

1960년대에 데이비드 오 백케이 대관장은 리 장로에게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하나님께의 순종, 가정과 가족의 신성함이라는 단순한 원리들을 중심으로 “상호 연관”시키는 대규모의 작업을 지시했다. 상호 연관을 위한 노력은 모든 회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교회는 이로 인해 이 시대에 교회가 맞고 있는 두 가지의 가장 큰 도전—전세계적인 폭발적 성장과 가족 붕괴의 증가에 대비할 수 있었다. 리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매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호 연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권을 … 하나님께서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곳에, 즉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의 중심이자 핵심에 놓는 것이며, 또한 말일성도 가정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계획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리 장로가 상호 연관 프로그램을 이끌면서 새로운 신권 가정 복음 프로그램, 경전에 중심을 둔 새로운 교과 과정,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신권의 더 한층 면밀한 감독이 이루어졌으며, 총 관리 역원의 지시 아래 새로운 교회 잡지가 발행되었다. 교회의

신권 정위원회와 보조 조직은 교회의 각 개인과 가족들을 강화시키는 일에 초점을 두도록 지시를 받았다. 1965년부터 각 가정은 1915년에 처음 실시되었다가 다시 혁신된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 시련을 통해 배움

리 대관장은 개인적으로 커다란 슬픔을 겪던 시기에 이 기념비적인 일을 성취했다. 부인이 1962년 9월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다. 몇 년 후 리 장로가 태평양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딸 모린이 40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했다. 딸이 사망한 후에 한 연차 대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구세주께서 [갯세마네에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부터 약 4,000 킬로미터 떨어진 호텔 방에서 여러분 또한 한번쯤은 외로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울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 ‘오 사랑하는 하나님이지여, 그 딸아이가 죽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그 딸아이가 필요합니다. 그 딸아이의 가족에게도 그 딸아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리 장로는 이렇게 회상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과 제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sup>19</sup>

이러한 시련들을 통해 해롤드 비 리 장로는 주님께 더욱 가까워졌다. “인생의 시험과 시련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몇 년 후에 독일 뮌헨 지역 대회에서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때때로 가장 극심한 시험을 헤쳐 나갈 때,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sup>20</sup> 리 장로는 1963년 6월 17일에 프레더 조운 젠슨과 결혼했다.



1972년의 대관장단. 제1보좌 엔 엘돈 테너 부대관장, 해롤드 비 리 대관장, 제2보좌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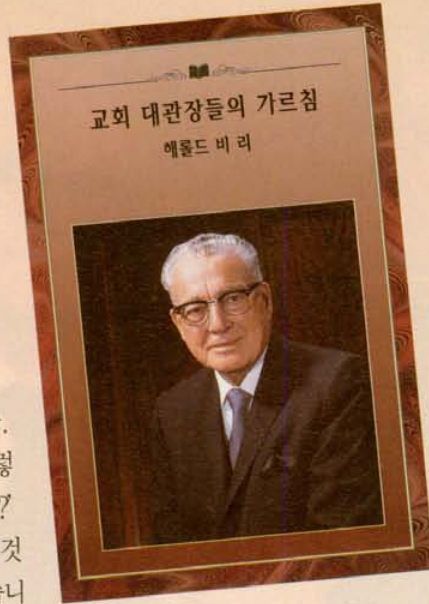
#### 교회 대관장으로서 간증하다

1970년 해롤드 비 리 장로는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의 제 1보좌가 되었으며 1972년 7월 7일에는 교회의 대관장이 되었다. 대관장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교회 회원들에게 주고 싶으냐는 질문을 받고 그는 다음과 같이 독특한 대답을 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속에 교회의 안전, 그리고 각 개인의 안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 오늘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이보다 더욱 강력하고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다.”<sup>21</sup>

상호 연관 프로그램에 관한 일을 행하면서, 그리고 교회 대관장으로서 그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노력들이 “인간에게 … 영생을”(모세서 1:39) 가져다주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우리가 “항상 그 목표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 놓아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sup>22</sup> 이러한 목표를 위해 그는 전세계적

인 신권 선교 사업을 대단히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대륙이나 지상의 일부를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상에서 생활하는 모든 영혼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sup>23</sup>

리 대관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겠다는 목표를 진지하게 그리고 몸소 실천했다.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의 아내, 마조리 비 헝클리는 남편과 자신이 리 대관장 부부와 영국에 머물면서 했던 경험을 기억한다. “그 날은 온종일 바빴습니다. 대회의 두 모임과 저녁 때 노년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홉 시 반 쯤 호텔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몹시 피곤하고 배가 고파졌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호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 비로소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중업원이 주문을 받기 위



해 연필을 들고 서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 대관장님이 그녀를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나가시나요?' 그 분에게는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분은 선교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기 전에 그 분은 이 젊은 여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교사를 만나 더 배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회의 대관장이 그 날 자신이 온종일 가르쳤던 내용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sup>24</sup>

대관장으로서 리 대관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와 간증을 가지고 여러 대륙, 곧 영국, 유럽, 멕시코, 중동 등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했다. 그는 멕시코시티와 독일 뮌헨에서 최초의 지역 대회를 감리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구세주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기쁨도 가졌다. 핑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1972년에 우리는 성지를 함께 거닐었습니다. [주님의 묘소가 있던 동산에서 모임을 하며] 그 신성한 경험을 하는 동안 감람나무 잎 사이로 달빛이 비쳤을 때, 우리가 예언자로 지지하였던 그 분께서 겸손하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느꼈으며, 그 날 밤 저는, 진정한 겸손과 어린아이의 신앙을 지닌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살아 계심을 일어나 증거하는 예언자의 위상을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에게서 보았습니다."<sup>25</sup>

대관장이 된 지 겨우 538일 만에 리 대관장은 74세에 갑작스런 심장 마비로 별세했다. 그 분의 서거는 그 분께서 오랫동안 봉사하실 것을 기대했던 말일성도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현재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리 대관장을 잃고 힘겨워 했다. "여러 날 밤을 잠 못 이루며 기도하고 의아해 하고 또 숙고하면서 '왜?' 라고 물었음을 시인합니다. 주님께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교회의 프로그램들에 익숙하고 정통하셨던 리 대관장님을, 우리가 가

2002년에 엘리세덱 신권 형제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의 가르침을 공부하게 된다.

장 필요로 할 때에, 왜 우리 곁에서 데려가야 하셨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sup>26</sup>

리 대관장은 생애 동안 한결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구하고 그 음성에 귀기울였다. 주님의 예언자로서, 그는 성도들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고장난 아폴로 13호의 우주 비행사들이 관제사들의 지시 사항에 따랐던 것처럼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라고 호소했다.

모든 말일성도 가족들이 새로운 개인 학습 지도서인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에 나와 있는 복음 원리와 교리를 숙고할 때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경전을 자신의 표준으로 사용했던, 하나님의 이 예언자는 "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훌륭하게 창안된 계획"을 힘있게 가르쳤다.<sup>27</sup> □

*브렉 잉글랜드는 유타 센트럴 바운티풀 스테이크 캐년 파크 와드의 회원이다.*

## 주

1.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 (2000), 2쪽 참조.
2. 엘 브렌트 고우테즈, *Harold B. Lee: Prophet and Seer* (1985), 37, 46쪽 참조.
3.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xiv에서 인용.
4.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47쪽.
5. 대회 보고, 1943년 4월, 129쪽.
6. 고든 비 핑클리,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xv에서 인용.
7. 고우테즈, *Harold B. Lee*, 86쪽에서 인용.
8. 고우테즈, *Harold B. Lee*, 106~114쪽 참조.
9. 고우테즈, *Harold B. Lee*, 94, 97~102쪽 참조.
10.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165~166쪽.
11. 헬렌 리 고우테즈와의 접견,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주, 1998년



12월 9일.

12. "Using the Scriptures in Our Church Assignments", Improvement Era, 1969년 1월호, 13쪽.
13. The Teachings of Harold B. Lee, 클라이드 제이 윌리엄즈 편 (1996), 153~154쪽.
14.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134쪽.
15. 고우테즈, Harold B. Lee, 122쪽에서 인용.
16. 고우테즈, Harold B. Lee, 117쪽에서 인용.
17. 헬렌 리 고우테즈와의 인터뷰
18.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149쪽.
19. 대회 보고, 1965년 10월, 130~131쪽.
20. 대회 보고, 독일 뮌헨 지역 대회, 1973년, 114쪽.
21.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35쪽.
22. The Teachings of Harold B. Lee, 564쪽.
23. 제이 엠 헤슬롭, "President Harold B. Lee: Directs Church; Led by the Spirit", Church News, 1972년 7월 15일, 4쪽.
24.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153쪽에서 인용.
25. 고우테즈, Harold B. Lee, 601쪽에서 인용.
26. "That All May Be Edified" (1982), 130쪽.
27.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2쪽.

##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이며, 또 그분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해야 할 일을 말해 주는 그분의 영의 느낌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계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갑작스럽게 임하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이 필요한 바로 그 시각에 들려오는 그러한 것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속삭임을 듣는 귀를 계발한다면, 여러분은 계시의 영에 따라 행동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 해롤드 비 리 대관장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 55쪽 참조)

# 꿈에 그리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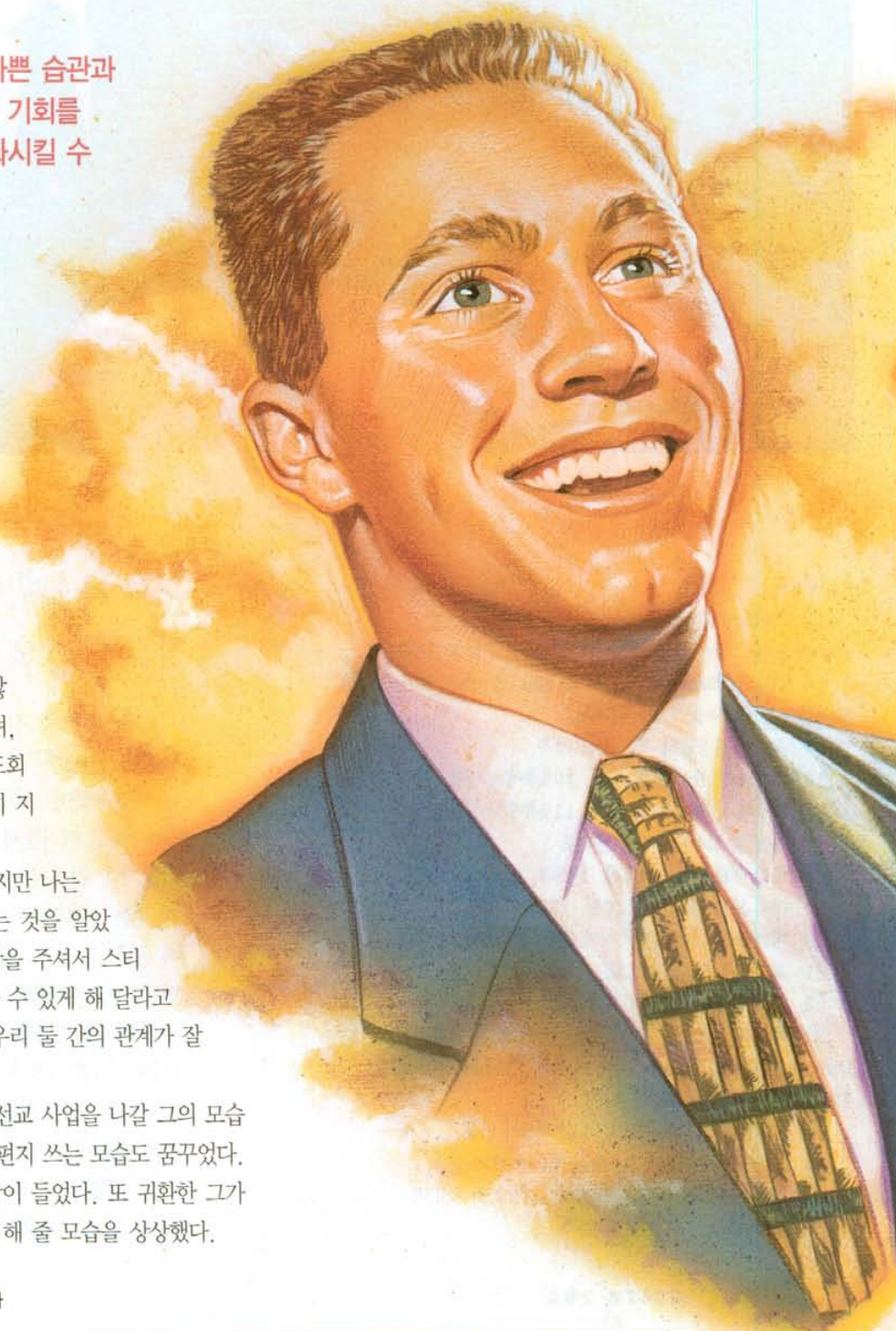
그는 완벽했다 — 단지 그의 나쁜 습관과 태도만 제외한다면. 그가 내게 기회를 주기만 한다면, 나는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라라 뱅거터  
삽화: 로저 모츠쿠스

**스**티브는 키코고 잘생긴 17살의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다. 두 살 어렸던 나는 그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도 나를 좋아했으니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는 데이트를 하진 않았는데 이유는 내가 아직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연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같은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내게 전화를 했으며, 나는 한 달에 두 번씩 스테이크 무도회에서 그를 볼 수 있었다. 나는 영원히 지속될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었다.

스티브는 활동적인 회원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를 문제 없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게 영감을 주셔서 스티브가 교회에서 활동적이 되도록 도울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둘 간의 관계가 잘 유지되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나는 내가 고등학교를 마칠 동안 선교 사업을 나갈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서로에게 충실히 편지 쓰는 모습도 꿈꾸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귀환한 그가 꽃다발을 들고 와 나를 깜짝 놀라게 해 줄 모습을 상상했다.





# 이상형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할 것이다. 그는 대학에 갈 준비를 마치고 뛰어나게 훌륭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전에서 결혼할 것이고 삶은 축복 그 자체이리라.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을 원했다.

이러한 로맨스를 꿈꾸며 석 달이 지난 후, 스티브는 한 무도회에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났다. 이러한 사태는 내 꿈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자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화 연락도 끊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울고 기도하는 것

뿐이었다. 울기도 많이 울고 기도도 많이 했다. 여러 달 동안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스티브에게 영감을 주셔서 내게 기회를 다시 주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더 잘 참을 거야, 더욱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될 거야,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도 변할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성장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시간이 좀더 필요할 뿐이야.* 나는 간곡한 기도를 드리며 요청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영에 귀 기울이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스티브는 내게 다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동안, 스티브의 여자 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결혼했으나 지금은 이혼한 상태이다. 스티브에게는 안된 일이지만, 나는 열다섯 살 때 드렸던 기도들이 내가 원했던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그 사람 없이 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그 이후로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십대 시절에 꿈속에서 그려 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 백 배는 더 멋진 한 귀환 선교사와 성전에서 결혼했다. 내 남편은 스티브나 내가 데이트했던 몇몇 사람들과는 달리,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남편은 이미 올바른 방법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나는, 당시에는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기도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열다섯 살 때 나는 좋은 것을 간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안다. 그 당시에는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내가 원했던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 그분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훌륭한 방법으로 내 꿈이 실현되게 해주셨다. □

*라라 뱅거터는 유타 주 플레즌트 그로우브 가든 스테이크 가든 제1와드의 회원이다.*



# 리아호나

## 2002년 2월호

### 활용하기

#### 공과 제언

■ “우리 생활에서 골리앗들을 물리침”, 2쪽.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우리 생활에 있는 골리앗들, 곧 우리를 퇴보시켜 멸망시키려 하는 세상의 악에 대해 경고했다. 우리는 어떤 무기를 사용하여 이 골리앗들을 물리칠 수 있는가?

■ “구약전서를 공부하고 가르침”, 10쪽.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는 구약전서를 공부하고 가르치기 위한 준비로서 니파이에서 25~33장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약전서 학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그가 준 네 가지 제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말 이상의 것”, 28쪽. 성찬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그 단어들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여러분은 이 성스러운 의식에 따라오는 아름다운 영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성찬의 목적을 깊이 생각하는가?

■ “새 친구 사귀기”, 친구들 10쪽. 가족들에게 보다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이번 호의 주제들

- 가르침 ..... 10, 48
- 가정 복음 교육 ..... 6
- 가정의 밤 ..... 48
- 가족 관계 ..... 친4, 친10
- 개종 ..... 30
- 정전 공부 ..... 10, 18, 36
- 구약전서 ..... 7, 10, 친8
- 모범 ..... 25
- 방문 교육 ..... 18, 24
- 병 고침 ..... 친12, 친14
- 선교 사업 ..... 25, 30
- 상호부조회 ..... 18, 36
- 성전 및 성전 사업 ..... 친2, 친4, 친6
- 성찬 ..... 28
- 신권 ..... 36
- 신성한 본질 ..... 24
- 신앙 ..... 30
- 신약 성서 이야기 ..... 친12, 친14
- 신체 장애 ..... 28, 30
- 역경 ..... 36, 48
- 예수 그리스도 ..... 친8, 친12, 친14
- 예언자 ..... 7, 18, 36
- 용기 ..... 2
- 외설물 ..... 2
- 우정 ..... 친10
- 유희 ..... 2
- 정직 ..... 친16
- 창조 ..... 친8
- 초등학교 ..... 친4, 친6
- 축복사의 축복 ..... 30
- 표준 ..... 25, 46

사진 삽화: 크레이그 다이몬드

#### 연차 대회로 인한 축복

지난달 리아호나에는 연차 대회의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연차 대회에서 어떤 유익한 것을 얻었습니까? 연차 대회로 인해 받은 축복, 관련된 의견, 이야기 및 경험 등을 다음의 주소로 보내 주기 바랍니다.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전자 우편 주소: CUR-Liahona-IMag@ldschurch.org.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와드와 스테이크 명칭(또는 지부와 지방부 명칭)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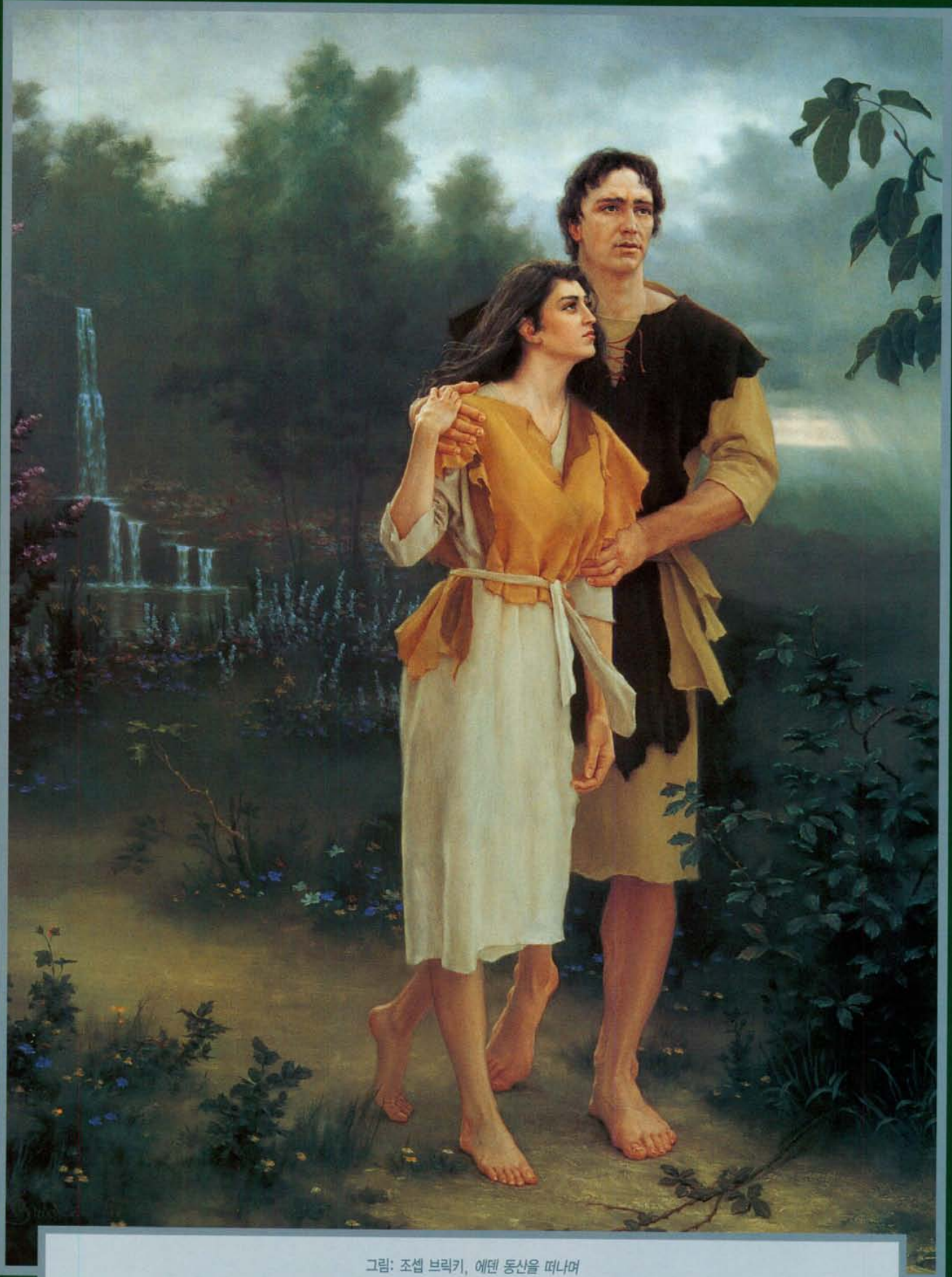


그림: 조셉 브릭키, 에덴 동산을 떠나며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창세기 3:23)

4 15229 82320 8  
22982 320

